

歸德里學術調查

1987. 7. 27~30

社會背景/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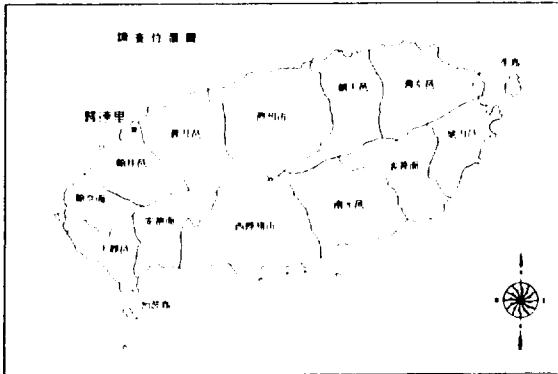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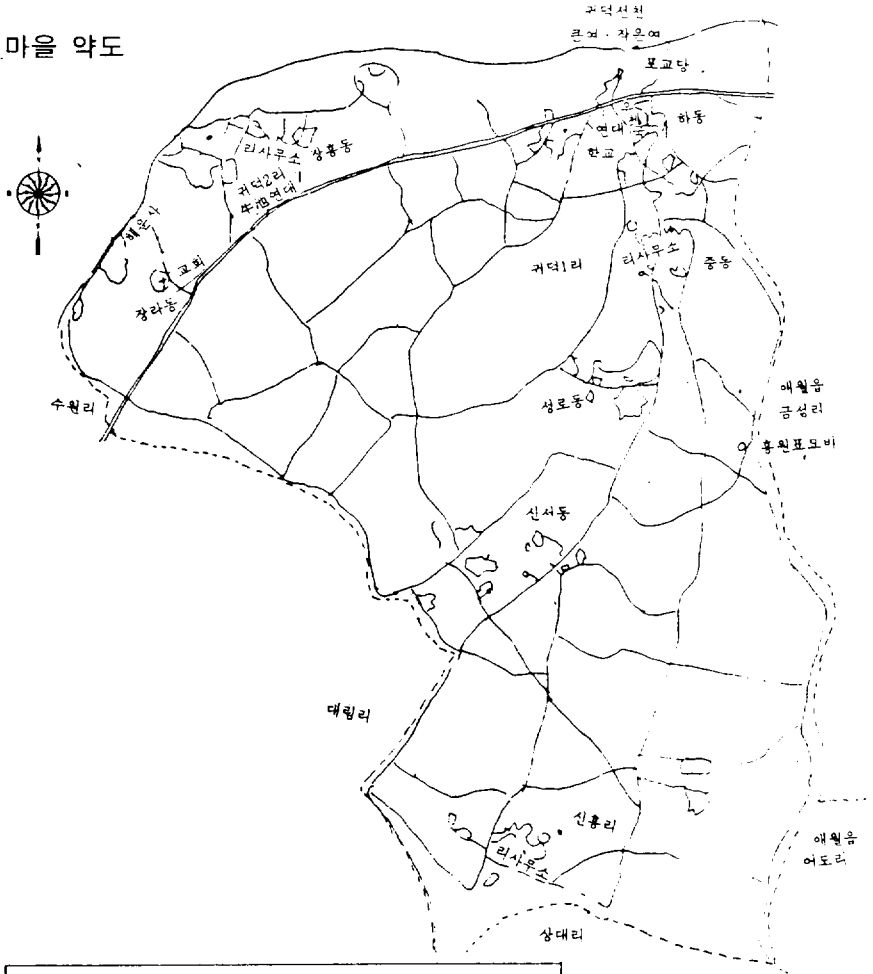
方 言/167

民 謠/185

說 話/216

信 仰/236

마을 약도





대왕이



무지개동산



굽드레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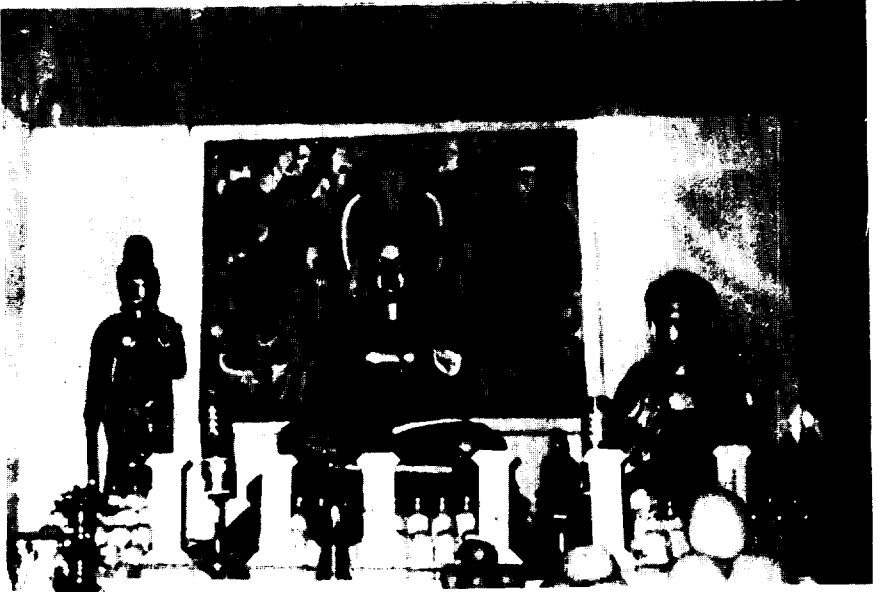
바다에서 본 마을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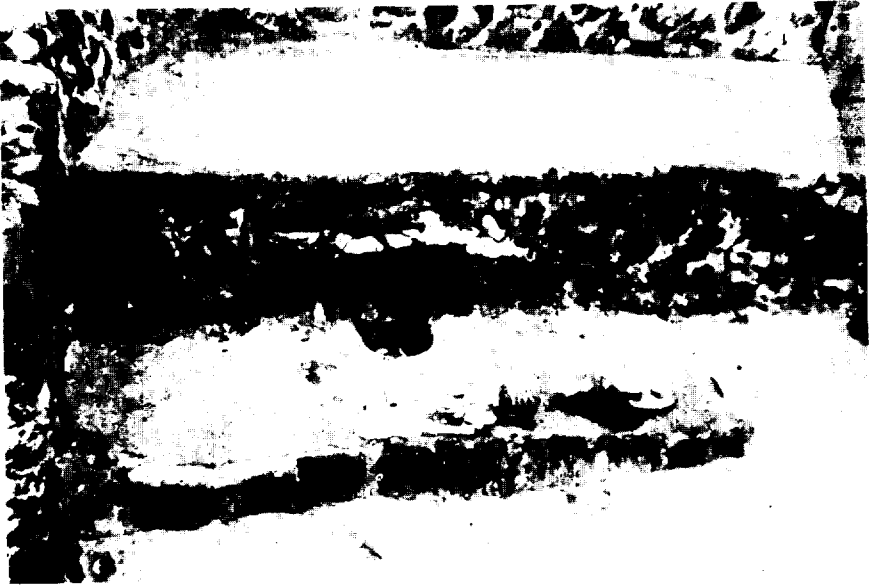
대왕이못



크니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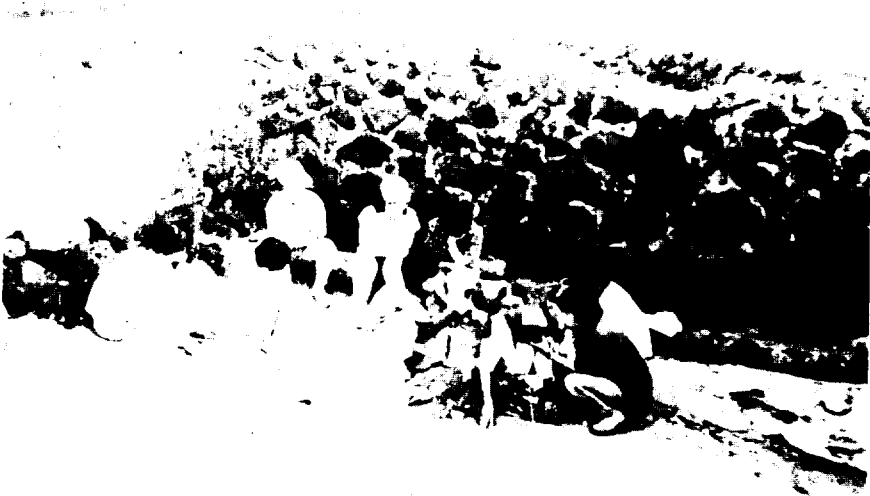
귀척포교당 내루



할망당



신흥동 비석거리



조사광경



얼구슬공예



범죄없는 마을 : 신흥동

社 會 背 景

指導教授：金 炳 澤

指導補助：李 正 鎰

班 員：金 昌 好 (4)

金 孝 貞 (3)

玄 忠 烈 (3)

金 亨 政 (2)

金 玉 三 (2)

吳 淑 泳 (2)

李 美 貞 (1)

目 次

I. 地理的 環境

III. 人文概況

II. 歷史的 背景

IV. 產業構造

I. 地理的 環境

濟州市에서 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歸德里는 北濟州郡 翰林邑에 속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歸德1里·歸德2里·新興里를 포괄한다.

총면적 614.2ha인 이 마을은 원래 10개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마을이었으나 1932년 행정구역 재편성에 의해 해안가에 자리잡은 長興同·長羅洞이 歸德2리로 분리되었으며, 1960년 산간 부락인 멀앗과 한다가 新興리로 분리되어 현재 3개 里·8개 洞으로 구획되어 있다. 그 면적과 구역은 <표1>·<표2>와 같다.

〈표1〉 면 적

자료 : 귀덕향토지 (귀덕국민학교. 1987)

구분	총면적	전	답	임야	기타
행정구역					
귀덕 1 리	299.6	231	0.6	5	63
귀덕 2 리	120.9	98.6	1.5	15	5.8
신 흥 리	193.7	130.7		30	33
계	614.2	460.3	2.1	50	101.8

〈표2〉 구 역

자료 : 귀덕향토지 (귀덕국민학교. 1987)

구분	동(洞)수	반(班)수	동 이 름
행정구역			
귀덕 1 리	5	36	사동, 하동, 중동, 성로동, 신서동
귀덕 2 리	2	15	장흥동, 장라동
신 흥 리	1	9	신흥동
계	8	60	

귀덕리의 경계는 동쪽으로 錦城里와 정지내를 경계로 하여 涯月邑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洙原里와 大林里에 그리고 남쪽으로는 냇물이 흐르는 것을 경계로 上大里와 접해 있다.

제주도의 지형은 대체적으로 기생화산이 많이 분포하는데 귀덕리는 광활한 마을임에도 산이 거의 없고 경사가 완만하다.

예전에는 귀덕리를 石淺村이라 하였는데 石淺이란 이름은 귀덕1리 바닷가에 있는 두개의 여(큰여, 작은여)를 石淺島라 부르는 데서 말미암았다고 전해지지만 확인할 수 없으며, 귀덕1리의 바닷가 마을은 북덕개라고 불리어져 온다.

귀덕리의 지세는 臥虎之勢(호랑이가 누운 형태)라고도 하며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말처럼 내려오는 형세라고도 한다. 실제로 '물코비'라는 지형은 말의 발자국과 같다는 것이지만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제보자: 조용봉, 男, 77세)

귀덕리에 있는 지명들을 살펴 보면 알동네(下洞), 젓골동네(寺洞), 너커리(四岐洞), 모살동네(沙洞), 중동네(中洞), 잣질동네(城路洞), 새시모을(新西洞), 진질(長路洞), 나신비(羅新洞), 멀왓(新興洞) 등이 있는데 이들 지명에 대한 유래는 다음과 같다.

- 알동네(下洞); 바닷가에 위치한 동네이므로 알동네(下洞)라고 한다.
 - 젓골동네(寺洞); 예전 이 동네에 대사찰(大寺刹)이 있었으므로 절고을(젓골동네(寺洞)라고 한다.
 - 뇌커리(四岐洞); 예전 이 동네에 네거리길이 있었으므로 뇌커리(四岐洞)라고 한다.
 - 모살동네(沙洞); 이 부락 토질이 전부 모래로 되어 있으므로 모살동네(沙洞)라고 한다.
 - 중동네(中洞); 부락의 중앙에 위치하고 鄉舍가 있었으므로 중동네(中洞) 또는 도가집동네라고 한다.
 - 잣질동네(城路洞); 지금은 흔적이 없으나 잣(城) 위로 통행하는 길이 있었으므로 잣질동네(城路洞)라고 한다.
 - 새시목울(新西洞); 마을 서쪽에 새로된 부락이라 하여 새시목울(新西洞)이라고 한다.
 - 진질(長路洞); 예전에는 장로동(長路洞)이라고도 하였는데 해안까지 내려가는 긴 길이 있다 하여 유래된 것이다.
 - 나신비(羅新洞); 동네 이름의 유래는 미상이다.
 - 신흥리(新興里); 말왓(馬屹洞)과 한다니(多橋洞) 두 동네로 이루어졌다. 해방후에 합하여 새로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뜻에서 신흥동이라 하여 귀덕4구라 하다가 신흥리로 되었다.
- 귀덕리에는 해안가에 '크니물', '굽드레기물', '언덕물', '죽은물' 등을 비롯하여 물이 솟는 곳이 많은데 특히 '굽드레기물'은 옛부터 이 물을 마시면 만병통치한다고 할 만큼 유명하다.

II. 歷史的 背景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상고에는 귀덕리를 石淺村이라 불렀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서기 1211년 고려 熙宗 7년에 제주에 현을 두게 되자 중국의 重慶地方의 지방명을 따서 歸德縣이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명명의 이유는 옛부터 이곳에서 무인 및 학자의 배출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귀덕리는 이미 고

려조에 縣村으로서 지방행정 체제의 운영을 하였다. 이 때의 촌락은 뇌커리와 중동네에 이루어졌었다.

이후 1273년 삼별초의 항쟁이 끝난 후 원이 남송과 일본의 요충지라 하여 군민달노화적 총관부를 설치하였을 때 이때부터 귀덕리에도 원의 불교가 점차 들어와 뇌커리에 큰 절을 지었고 당수덕에 신당을 세웠으며 그리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던 射場과 煙台와 望台를 설치해서 해상방위와 교통통신의 요새지로 마을을 이루어 왔다.

17세기초 縣制를 폐하고 坊里制를 설치하면서 귀덕현은 귀덕리로 개칭되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귀덕리도 점차 큰 마을로 변해 가고 동네들도 붙어가는 가운데 警民長, 또는 里長이 里政을 책임 관리하였다. 일정시대에는 귀덕리를 4區로 분할하여 里長 산하에 區長制를 두었으니 1區에는 中洞·下洞·沙洞을, 2區에는 長興洞·長羅洞을, 3區에는 城路洞·新西洞을, 4區에는 馬屹洞·多橋洞(漢橋洞)을 포괄하였다. 그러다가 1·3·4區가 歸德一里로, 2區가 歸德二里로 분리되었고 1960년 4區가 新興里로 독립되므로써 현재 3개로 나누어졌다.

귀덕1리에는 마을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대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는 큰 기러기가 앉은 모양과 비슷하다고 전승되기도 하는데 건강부회인듯 하다.(세보자; 조용봉 77세) 그리고 여기에는 봉천수가 고인 못과 몇그루의 나무가 우거진 제단이 있다. 또한 귀덕국민학교 구내 뒷동산에 있는 귀덕연대는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지만, 예전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연기와 봉화로써 동쪽으로는 애월연대에 알리고, 서쪽으로는 소뫼연대(牛池煙台)에 알렸다고 한다. 귀덕2리 장로동 일주도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소뫼연대(牛池煙台)는 현재 유적지로 복원되었다.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신흥리는 '87년 현재 가구수 119호에 인구 488명으로 타도에서 들어온 3가구를 제외하고는 마을 구성원 대부분이 이곳 출생이다. 산간 부락이 대부분 그렇듯이 4·3사건 당시에 피해가 많았으며 해안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범죄없는 마을'로 2년간 선정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Ⅲ. 人文概況

귀덕리는 3개리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7년 7월 27일 현재 가구는 833호이고 인구는 3,363명이다.

〈표3〉 가구 및 인구

자료 : 1987년 한림읍사무소

행정구역	구분 가 구	인 구		
		계	남	여
귀덕 1 리	484	1,902	925	977
귀덕 2 리	230	973	469	504
신 흥 리	119	488	228	260
계	833	3,363	1,622	1,741

위의 표에 나타나듯이 가구 및 인구현황에서는 귀덕1리가 484가구에 총인구 1,902명으로 제일 많고 신흥리가 제일 적다. 그리고 여자인구가 남자인구보다 다소 많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성씨분포

행정구역	성 씨											
	金	李	洪	姜	高	康	梁	文	趙	朴	玄	辛
귀덕 1 리	399	236	178	97	100	4	98	53	48	31	31	.
귀덕 2 리	273	80	81	7	64	25	31	13	27	46	.	3
신 흥 리	28	75	11	.	29	100	34	3	.	2	.	.

행정구역	성 씨											
	宋	夫	尹	曹	鄭	申	張	吳	池	邊	任	崔
귀덕 1 리	24	20	18	.	15	25	14	8	8	7	6	4
귀덕 2 리	23	9	.	4	1	3	5	3	.	.	28	18
신 흥 리	2	1	13	.	.	3	4	.

행정구역 \ 성씨	林	秦	孔	左	男	安	禹	漢	權	白	孫	河
귀덕 1 리	·	5	4	3	2	2	2	2	1	1	1	1
귀덕 2 리	11	·	·	1	·	6	·	·	·	·	1	·
신 흥 리	·	8	·	·	1	2	·	·	·	·	·	·

행정구역 \ 성씨	許	全	車	俞	黃	都	徐	蔡	郭	計
귀덕 1 리	1	1	1	1	4	·	·	·	·	
귀덕 2 리	·	·	1	·	2	1	1	·	·	
신 흥 리	·	·	·	·	1	·	1	4	1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귀덕1리에는 金氏 姓이 399名으로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李氏 姓도 236名에 달한다. 그리고 洪氏 姓이 178名이나 되는 것이 한가지 특징이며 신흥리에는 康氏 姓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 年 齡 別 人 口 現 況

자료: 1987년 리사무소 제공

구분 \ 행정구역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귀덕 1 리	47	95	151	186	143	96	118
귀덕 2 리	30	65	83	98	104	61	28
신 흥 리			34	60	50	28	15
계	77	160	268	344	297	185	161

구분 \ 행정구역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
귀덕 1 리	62	68	84	66	111	38	55	114
귀덕 2 리	26	42	28	52	41	32	44	72
신 흥 리	17	23	25	24	20	14	15	26
계	105	133	137	142	172	84	114	212

귀덕1리에 현재 위치한 歸德國民學校는 1940년 사립인 귀덕심상소학교로 개교하였으며 1945년 지금의 校名으로 改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8학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男學生이 126名, 女學生이 145명으로 다소 女學生이 많은 편이다. 1981년 설립된 귀덕유치원은 같은 해 귀덕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원아수는 25명이지만 그 인원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보호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농촌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대학 졸업자는 소수에 해당된다. 즉 국민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졸업자가 제일 많게 나타난다.

〈표6〉 文化施設

구분 행정구역	전화	신문	전축	칼라 T·V	흑백 T·V	V·T ·R	피아 노	세탁 기	선풍 기	냉장 고	이륜 차	화물 차
귀 덕 1 리	32	14	3	38	35	3	·	2	70	65	3	2
귀 덕 2 리	23	7	4	29	12	1	1	1	42	39	4	1
신 흥 리	18	12	2	17	11	·	·	1	26	14	1	

가정의 문화혜택은 거의 대부분 TV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문을 구독하는 가수도 현재 30여 가구를 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선풍기 및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 또한 구비되어 있으며 많은 가정에 전화가 보급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농촌과는 달리 마을안의 곳곳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서 생활에 편리를 주고 있다.

관공서로는 각 마을에 리사무소가 있어서 크고 작은 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 역시 농업에 걸친 전반적인 정보와 주민들의 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자금의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 근래에는 신흥리에 감귤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신흥감귤선과장이 설치되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한림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부들이 시장을 볼 때에도 대부분 한림에 드나들고 있는 실정이며 마을 내에 이발소를 두고 있다.

歸德里는 대부분 佛敎를 믿고 있으며 基督敎人과 天主敎人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이전에 토속신앙이 깊게 뿌리를 내렸던 영향으로 여전히 외래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현재 佛敎는 귀덕1리에 귀덕포교당을, 귀덕2리에 海雲寺를 두고 있는데 그 信徒는 귀덕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널리 타지역에도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基督敎는 정식 명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귀덕교회가 나신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50여명의 신자가 있다.

이러한 公認宗敎 이외에 堂祭를 지내던 '할망당'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언급되고 있다.

IV. 産業構造

귀덕리의 산업구조는 主農副漁인데 해안과 접한 귀덕1리와 귀덕2리는 어촌계를 조직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半農半漁의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바다와 떨어진 新興里나 歸德一里의 성로동·신서동 등지에서는 농사에만 힘쓴다.

1962년 조직된 귀덕1리 어촌계는 1978년 10월 한동 법인 어촌계로 개칭되어 귀덕리 및 한림 6개 자연부락을 통합하였다. 그러나 1985년 2월 21일 경영난 부실로 한동 어촌계가 해산되고 귀덕1리 어촌계, 귀덕2리 어촌계로 재조직되었다. 귀덕1리 어촌계 회원은 '87년 현재 101명, 귀덕2리 어촌계 회원은 157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표7〉 농기구 현황

자료: 한림읍 읍사무소(1987년)

행정구역	구 분						
	동 력 절단기	예 취기	동 력 탈곡기	농 용 원동기	동 력 경운기	농 용 양수기	동 력 분무기
귀 덕 1 리	6	40	8	2	77		36
귀 덕 2 리	3	16	5	3	28	1	27
신 흥 리	3	15	9	5	29		21

〈표8〉 어업수입

자료 : 한림읍 읍사무소(1987년)

행정구역	구분 계(천원)	어						양 식	
		돔 류		잡 어		생 선		툇	
		생산	금액	생산	금액	생산	금액	생산	금액
귀덕 리	44,986	450	4,950	3,200	6,400	1,800	7,200	-	-
귀덕2리	62,711	1,200	13,200	4,700	9,400	2,850	11,400	2,860	7,436
신흥리									

행정구역	구분 계(천원)	양 식					
		소 라		전 북		기 타	
		생 산	금 액	생 산	금 액	인 원	금 액
귀덕1리	44,986	1,282	5,236	320	6,304	2,800	14,896
귀덕2리	62,711	1,240	5,065	169	3,309	2,425	12,901
신흥리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어획에서의 수입은 돔류, 잡어, 생선에 치중하고 있으며 양식에서의 수입 툇, 소라, 전복 등에서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덕1리와 귀덕2리는 주요작물 이외에 양파, 양배추, 원예 등의 특수작물을 재배한다. 근래에는 귀덕2리에서 영지버섯과 파인애플 재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어촌계를 중심으로 공동출하를 하여 톤당 3~4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외에도 70여명의 해녀들이 소라나 전복 등을 캐어 1가구당 총수입 정도는 450만원이 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 근래에는 신흥리 일대에서는 감귤소득이 높은 반면 소, 돼지 등의 가축사육 정도는 대단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업을 살펴보면 정동모자와 멀구슬공예가 있는데 정동모자 등의 몇가지 제품은 제주도의 토산품으로 품질이 좋고 빛깔이 대단히 곱다. 1년 내내 한가한 틈을 타서 이 제품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재료는 들판에 자라고 있는 멍멍이덩굴을 이용한다. 귀덕1리 잣질동네(城路洞)를 중심으로 이처럼 멍멍이덩굴을 이

용한 관광토산품이 걸어지는 데에는 그만큼 까닭이 있다. 곧 농부들이 쓰는 제주도 고유의 패랭이인 이른바 '정동벌립'(정당벌립)이 제주도내에서도 유독히 귀덕1리 잣질동네에서 걸여져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동네의 洪萬年씨(귀덕리 1578번지, 1910년 9월 26일생)는 1986년 4월 濟州道無形文化財 제8호 '정동벌립匠' 技能保有者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도 전역에 자생하는 멸구슬나무 열매의 씨를 이용하여 멸구슬 공예가 귀덕2리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 강도가 아주 높으며 자연 고유의 색상과 촉감이 우수하다. 주로 베개, 벽걸이 장식, 지갑, 염주, 쇼파방석, 등받이, 시트커버 등을 만들고 있다. 이 멸구슬 공예로 1985년~1986년, 제2회~제3회 올림픽 기념품 전시회 및 제15회~제16회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제주도 북군 도예선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북군 한림읍 귀덕리 1036 창영공예)

方 言

指導教授：金 洪 植
金 光 雄
姜 榮 峯
班 員：金 香 錦 (3)
夫 守 那 (3)
李 斗 仁 (1)
高 銀 卿 (1)
張 希 禎 (1)
朴 珍 炯 (1)
金 玉 順 (1)
玄 文 嬭 (1)

目 次

- | | |
|--------|----------|
| I. 語彙 | Ⅲ. 地名·風名 |
| Ⅱ. 植物名 | Ⅳ. 農機具 |

○ 調査経緯 및 記述方法

이 보고는 1987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에서 조사한 지명, 식물류명, 농기구명, 가축, 가옥구조 등의 어휘를 수록하고 있다.

귀덕리는 귀덕1리, 귀덕2리, 신흥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귀덕1,2리는 제주도의 대부분의 마을처럼 반농반어의 생활형태를 지닌 부락이고 신흥리는 축산·원예를 주업으로 하는 마을로써 식물류명을 조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다.

조사에 임하면서 신속하게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내용에 따른 한국방언조사질문지, 제주도의 식물도감, 농기구의 그림, 귀덕리의 지도를 준비하였다. 그것들을 이용하여 면접을 통해 어휘들을 채록해 나가면서 조사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그 과정을 녹음기에 담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현지조사에서는 첫 날에는 사진조사로 어휘·지명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식물류·농기구의 부분명칭까지 채록해 나갔다.

한국방언조사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어휘들은 어느 정도 쉽게 方名을 채록할 수 있었고 농기구에 있어서도 그 사진들이 他지역의 사진들이어서 제주도와는 부분적으로 달랐지만 보충설명을 곁들이다보니 복잡한 농기구의 부분적인 명칭들을 채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식물류名인 경우에는 칼라사진으로 되어있는 식물도감을 이용하였지만 사진을 통해서도 서로 식물들이 비슷비슷하고 조사에 임한 반원들도 처음보는 식물들과 식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모자라 보충설명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진에만 의존하다보니 方名을 채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방법을 달리하여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께는 소가 먹는 풀들을, 할머니들께는 밭에 나는 잡초들을, 어부들께는 해초이름들을 질문하는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풀이름들을 조사해갔고 직접 주위의 풀들을 뜯어다 보이면서 채록해 나갔다. 그리고 귀덕리의 마을구역이 넓어서 계획적으로 귀덕1,2리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였지만 신흥리까지 바쁘게 뛰어다녔으면 부족한 식물류명에 있어서는 보다 많고 정확한 이름들을 채록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명에서는 마을별로 귀덕1리, 2리, 신흥리를 구분하여 따로 채록하였고, 마을의 경계, 땅이름 뿐만 아니라 바다이름, 바람이름 등도 조사하였다.

위의 모든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사류와 참고 어휘들도 함께 채록해 나갔다.

이번 학술조사를 통해 그동안 막연히 느껴왔던 지역들간에 방언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방언들 차이의 요인들과 함께 제주도 방언연구에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I. 語 彙

번호	표준어	방 언	등사류 및 참고어휘
1	벼	나룩, 나룩	
2	쟁과리	쟁, 쟁과리	
3	쟁기	쟁기	
4	씨레	설레	
5	호미	골괘이	
6	낫	호미	
7	삼	삼	
8	쇠시랑	쉐시랑, 소시랑	
9	괘이	목괘이, 곡괘이	글괘이
10	벧가리	늘	노람지틀 여꾼다, 보리낭늘, 보리낭뭇, 노람지, 주쟁이, 곡지, 생이방석
11	벼훑이	클, 가래기클, 보리클	
12	새끼	노, 노꾼	노꾼다, 어울린다, 칩노, 질빵, 호랭이
13	도리깨	도깨, 태작	마당질, 도깨질 *해야도 흥야
14	멍석	멍석	
15	짚방석	독석, 2랫방석	
16	맷돌	맷돌	우착(위), 알착(아래), 웃2래착, 알2 래착, 채(사이), 조룩(손잡이)
17	키	푼채, 푸는채	
18	까불다	푼다, 푸는채질	
19	어베미	대채	얼맹이, 2는채, 대거름채, 중채, 총채
20	보리	보리	
21	맥주맥	줄보리	
22	대맥	걸보리	
23	소맥, 밀	술보리	
24	감부기	간베기, 간비억	
25	밭이랑	고지이렁	
26	밭고랑	고랑	
27		멍에질	밭이랑의 양끝에 가로 갈아진 곳

번호	표준어	방 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28	조	조	맛시리, 개발실이, 모인조, 호린조, 조코고리
29	수수	대죽, 사당대죽	빚대죽, 왕대죽, 혼모작(마디)
30	수숫잎	고고리	
31	옥수수	강남대죽, 강낭대죽, 대죽부르기, 깡병이	대죽쉬엄, 대죽부르기쉬엄
32	무 우	놈 뼈	놈뼈쌈, 초마기, 드르노물, 노물쌈, 여 름놈뼈, 혼못
33	감 자	지실, 지슬	
34	고구마	감자, 감저	감저 에 놓는다, 셋감저 *감저모종 놓 아시냐? 흐랑흐랑 해쨌
35	가 지	가 지	
36	콩나물	콩노물, 콩지름, 콩주름	콩주름 놓는다, 콩노물 질문다, 콩노물 키 운다, 콩노물 대맹이, 대가리, 발 *콩노물 꼭지 다듬아불라
37	오 이	웨	물웨, 춤웨
38	토마토	일년감	
39	솔	숫	시치다(씻다), 숫천, 숫덕, 말치(4.5식 구), 두말따기(제일 큰 솔), 죽은숫(국, 찌개) *가랑뒤에 정지내가 시번터지면 숫씻어어른 다
40	조 리	조루, 조룩	
41	주 적	울금, 우금	웨울금, 낭울금, 배수기(밥 짓는 것), 국자, 남자(나무로 만들)
42	솔뚜껑	숫뚜껑	뜸재우다(뜸들이기), 부굴래기 *밥개 엄시매 쓸놓으라
43	항아리	황, 항	망대기, 단지(젓), 도가리, 대바지(허벅 小), 춘(술)
44	부 역	정 지	
45	아궁이	숫강알	
46	연 기	네	
47	그을음	그슬렁	
48	부지깽이	부지땡이	
49	고무래	당그네, 서얼래	굴루네

번호	표준어	방 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50	화 로	화 리	정동화리, 지췌화리
51	재	불치, 불체	불수까락, 불경, 부제
52	석 쇠	적 췌	
53		살 레	* 살레아래 족제비 잡으라. 좁박, 대웁새기, 짐작기
54	찾 방	찾 방	
55	담뱃대	통 대	
56	부 시	부들, 부쉐, 부새, 부들	불적, 미승불
57	불 목	굴 목	
58	깨	깨	
59	자물쇠	통 췌	
60	열 쇠	열췌, 췌쌍석, 채장석	
61	배 개	배 게	목침, 낭베게, 목당, 죽침
62	마 루	산 방	돌낭간
63	미닫이	밀 창	호령창(마루에 있는 문)
64	여닫이	창	
65	돌쩌귀	돌철귀, 걸췌, 돌치귀	암돌철귀, 솟돌철귀
66	귀 알	비알, 비차락, 비 아리	플딱새기, 박새기
67	벽	백	
68	지계문	지계문, 지레문	
69	흑 손	흑손, 마께	남손(나무), 췌손(쇠)
70	섬 돌	이잇돌	
71	지 붓	지 붓	
72	짐입구	울 레	
73	사닥다리	사드레, 산태, 사 다리	
74	기와집	기와집, 기왓집, 지에집	
75	헛 간	막사리, 막살이	

번호	표준어	방 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76	초가집	초가집, 초집	초막살이, 울담
77	대 문	정 낭	정주목
78	기 둥	지동, 지둥	삼머루(가로), 중머루(중간), 서리(세로), 개윗도리, 대 들포, 문지방이, 문입장이
79	주춧돌	푯지동	도리지둥
80	장독대	장항띠	* 뒤에강 장 걸어오라
81		우영빳, 우영팏	울타안에는 자그마한 밭
82	변 소	통시, 통생이	
83	두레박	바가지	
84	다듬잇돌	안반, 돤베	덩드렁(돌)
85	방망이	새담마께, 방맹이	덩드렁마께, 방애꺼(곡식), 남방애(나무), 물그래(연자방아)
86	다리마	다루훤, 다리훤	
87	인 두	운 디	
88	허리띠	허리띠	
89	두루마기	창옷, 후리매	창신, 두루막금
90	고쟁이	고장중이, 바지중이, 굴중이	
91	버 선	보 선	
92	대 님	다림, 다임	다림친다
93	갓	입젓	
94	깃	깃	
95	지괘이	지괘이, 주랑	
96	망 건	망 긴	
97	마고자	마구자	
98	조 끼	쨌깨, 쪼끼	
99	바 지	바 지	쩍바지, 소개바지(숨), 누비바지
100	짚 신	짚 신	
101	나막신	남 신	
102	재봉틀	재봉침, 미승	
103	골 무	골매, 지환	

번호	표준어	방 언	등사류 및 참고어휘
104	가 위	꺾웨, 가우	
105	등 잔	등잔, 쉼유작지	
106	누 에	누 에	
107	고 치	고치, 고추	
108	번데기	누에뽕통이	
109	뽕 잎	뽕쌈, 뽕낭입, 뽕 이파리	* 뽕낭입 강 토당오라
110	세면기	세숫대야	노씻다
111	머리빗	얼레기	챙빔
112	공 기	공 기	
113	고 누	꼬저, 꼬너	
114	목 마	칭개고개	
115	목	야 게	
116	자치기	자치기	
117	재기차기	쪄끼차기, 쪄기차기	
118	웃	웃, 웃놀이	유뽕, 웃물, 물그리다
119	그 네	그네, 추천	
120	썰 매	능끄렁	
121	팽이치기	팽이치기	
122	팽이줄	팽이채	(재료) 솔나무, 종나무
123	얼 레	걸레, 얼레	
124	연	연	개구리연, 돌연(가오리연)
125	연 줄	연 쥘	
126	꾸러미	괘 미	죽(술가락), 단(보리짚), 바리
127	병	술 병	
128	고 기	괘 기	
129	생 선	응토미, 옥뜸세	물인어(비늘無)
130	추	뽕 돌	
131	지느러미	등쓸가시, 등술	
132	아가미	아구리, 아궁이, 쿠쟁이	
133	날 개	날 개	

번호	표준어	방 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134	조 리	꿀랭이	
135	미꾸라지	미꾸라지	
136	올챙이	멘죽이	
137	개구리	골게비, 두태비	
138	맹꽁이	맹마구리	
139	갈 치	갈 치	
140	가오리	가오리	
141	게	깁 이	꿩깁이, 뚱깁이
142	새 우	새위, 사우	
143	다슬기	웬보말, 생이보말	수드러, 곰생이, 먹보말, 문다조리(=군보말)
144	달팽이	돌팽이, 돌뱅이	집있는 돌뱅이
145	벼 룩	베룩, 베훈	
146	모 기	모 기	
147	파 리	쁘리, 파리	
148	잠자리	밥주리	
149	매미	제 열	맹꽁이 재열, 꽃제열, 왕제열
150	거미	거 미	
151	애뚜기	만축, 말축	
152	방아깨비	심방만축	
153	벼마제비	곡제기, 당뱅이	
154	여 치	물만축	
155	소금쟁이	물방개	
156	반딧불	불한디	
157	벌	벌, 꿀벌	청벌, 사상벌, 왕벌
158	경 에	멍 에	
159	소	췌	암췌, 부렁이
160	송아지	송애기	
161	구 유	구시, 출통	
162	고양이	고앵이	
163	삼	삼, 숙, 식	
163	닭	독	

번호	표준어	방 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165	벼 슬	고 달	독고달, 알고달, 웃고달
166	빙아리	빙아리, 비애기	독구덕
167	돼 지	돼야지, 도세기, 돼야지	자리돼야지 * 자웅철왕 시경가키여
168	여 우	여우, 여회	
169	노 루	노루, 노리	
170	퀴	중이	
171	박 퀴	도람퀴	
172	다람퀴	도람퀴	
173	두더지	퀴다리	
174	참 새	참생이	
175	솔 개	춤 매	똥소로기
176	까 치	까 치	
177	삐꾸기	삐꼭새	
178	핍	핍	암핍, 장핍
179	해바라기	해바라기	
180	국화리	꽃께, 풀철귀	몰물철귀
181	도깨비바늘	가마귀바늘	생이족박
182	냉 이	난쟁이	
183	도 끼	도 치	쉐감, 새감
184	글쟁이	글깁이, 글쟁이	
185	그루터기	낭둥치, 둥치, 통 치뿌리	
186	홍 수		큰물 터지다
187	회오리바람	독궁이 주재	
188	무지개	황고지	
189	풍 깨	풍채기, 물풍쟁이	

제보자 : 梁禹鍾(男 · 68)

金昌彦(男 · 73)

Ⅱ. 植 物 名

- | | |
|----------------------------|-------------------|
| 7. 향나무썩 | 149. 춤비눔, 춤비눔 |
| 8. 물풀 | 152. 물모작쿨 |
| 11. 배체기 | 156. 췌비눔 |
| 14. 고사리 | 164. 더덕, 진풀 |
| 15. 고사리 | 171. 연꽃 |
| 16. 당낭(풀고사리, 들칸고사리) | 173. 아이모리탈 연꽃 |
| 17. 고사리(당낭종류) | 204. 줄쟁이(요름) |
| 18. 알릅, 험염고사리, 험엿고사리 | 207. 정동(춤정동, 참정동) |
| 22. 춤고사리 | 208. 개정농 |
| 23. 가마기족박 | 233. 난쟁이꽃 |
| 31. 허공고사리 | 555. 저신살이 |
| 34. 동낭, 당낭, 독낭 | 603. 솔꼬대기 |
| 43. 멀랫줄 | 609. 푸개니낭 |
| 46. 들룩, 들룩 | 643. 태체기, 배차기 |
| 61. 노가리 | 653. 풀찰귀낭, 두개니낭 |
| 63. 솔뿌, 봉오지낭, 향낭, 삼백초, 소낭뿌 | 758. 소앵이꽃 |
| 68. 메물꽃, 메밀, 모목꽃 | 759. 가마귀바눔 |
| 69. 오동개비, 개제피낭 | 807. 질막이 |
| 75. 자귀낭 | 811. 제안지, 산구짓풀 |
| 87. 도토리낭 | 815. 가마귀바눔 |
| 103. ~수췌 | 816. 조고락풀, 고랏 |
| 107. 모심이낭 | 823. 새 |
| 110. 게낭, 진 | 824. 어욱 |
| 111. 모신입, 모신당 | 848. 새악시풀 |
| 123. 한바쿨 | 873. 도채비끈낭 |
| 124. 생게 | <소먹이는 풀> |
| 126. 개상게, 개생게 | 걱정동 |
| 127. 태역, 태역새 | 췌 썰레기 |
| 132. 물마직쿨 | 고네할미 |
| 138. 마꽃 | 참정동 |

폭석웨
 억새풀(푸석사)
 목추(목촌)
 송학
 담장이
 칩
 소웨출(전초)
 기름소세, 왕소세, 대죽소세
 머육세
 <해초>
 노랑깽이
 노랑망
 감태
 메역
 뭍(고지기, 실겅이, 이름뭍)
 듬북
 매산
 파래(깁이파래, 농파래, 총파래, 늪)
 청각(개청각, 도채청각, 조청각, 물청각)
 <겨울검집>
 췌비늪
 소시리쿨
 게하니
 난지풀
 게낭
 고대색
 천상쿨
 수우
 삼마
 조팃검집
 조코닷
 살마
 물웃

<기타>
 개성개
 곤넵이
 피
 개비벌레
 천상쿨
 췌비늪
 췌터럭
 췌털개
 춤비늪
 제한지
 가마귀외쭈
 콩쭈
 배차기
 당낭
 돛새
 ㄱ랏
 숙, 숙, 숙
 섬씨리
 역귀
 상고지
 뽕이
 글력푸리
 고니할미
 두낭, 닥낭
 생계
 현니왔고사리
 오차
 좀너콩
 담쟁이
 삼수대
 금과태
 근관소
 보쿨
 밤스양이
 황고지
 물검질, 물검질이
 솔똥
 솔이파리
 상고지
 난쟁이풀
 유채
 재낭
 선인장
 몽쿠슬낭
 풍나무
 아까시낭
 실겅이낭
 스앵이
 소시락쿨
 난지쿨
 할미꽃
 걱정동
 췌필레기

제보자 : 송여량(女 · 70)
 홍정표(男 · 73)
 김정량(女 · 75)
 김문하(女 · 79)
 조영남(男 · 48)

*번호는 <제주도의 식물도감>의 일련번호임.

Ⅲ. 地名·風名

● 귀덕 1 리

1. 가운데기 ○ 남신질왓 : 절이 있었는데 그곳에 남승이 있었다.
2. 간중이 : 난중이, 난중이 ○ 재뽏거리
3. 갯동네 ○ 너븐뽏
4. 강력지 : 신서동 북쪽에 있는 밭
5. 구랭이굴
6. 갯동네 : 갯가에 있는 동네
7. ㄱ는길 : 중동, 동카름 동쪽에 있는 밭으로 가느다란 길가가 됨.
8. 꿔승장
9. 당애엿
10. 동백낭거리 : 동백나무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
11. 동웃질동산
12. 동호징, 돈지 : 할망당이 있는 곳
13. 대뽏이 (대뽏이)
14. 대옹이 : 대왕이
15. 돌섬 : 귀덕포 동북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 외딴섬. 지형이 동그랗게 생겼음.
16. 마구뽏 : 물을 말에게 먹이던 뽏
17. 마깨동산
18. 마흘동 : 멀왓, 물왓, 모흘왓
19. 문미들락 미역동산, 장더기왓
20. 문뽏골 : 중동서쪽에 있는 밭, 옛날에 성문이 있었다.
21. 복덕개
22. 바께
23. 보모리왓
24. 병다니 : 병마께, 망바께
25. 복덕동산
26. 빌래물
27. 새질드르 : 새길가에 있는 들이라는 데서 유래
28. 승지막홀, 승지모를
29. 새설동산 : 新設동네

30. 서들왓 새실막을 : 신서동
31. 숭밭 제비새미
32. 새소무리
33. 새실 : 사동(沙洞) 모래가 많음. 마을이 생긴지 70여년 밖에 안됨.
34. 연화못(연화지) : 연꽃이 있었던 샘. 연화도수형이 있는데 그곳에 못이 있었다.
35. 옥터(獄) : 감옥이 있었던 곳
36. 안갯 : 큰개아래 안쪽에 있는 개
37. 열왓동산
38. 아홉굴밧 : 새실동쪽에 있는 밧, 아홉층으로 된 굴밧이 됨.
39. 어렁문채 : '魚龍文彩'형의 명당이 있었다 함.
40. 염지모루
41. 온막들왓 : 옷머들왓. 머들이 있는데 여자의 옷처럼 생겼다 함.
42. 원당
43. 왕다리
44. 존나시
45. 적골동네 : 寺洞, 절이 있었다(중국사람의 절)
46. 작은여
47. 잣질동네 : 중동남쪽에 있는 마을. 옛잣(성) 길으로 길가가 됨. 성로동(城路洞)
48. 조애, 조혜, 조예 : 새실 서쪽에 있는 밧. 조효자 비가 있다.
49. 칭개못
50. 채승장
51. 채머리
52. 채근여
53. 광거리, 광노로, 광노루 : 미역동산 북쪽에 있는 들로써 사람들이 모여 쉬고 노는 자리(땅)가 있었다.
54. 화장물
55. 횡개못, 행개못

○귀덕 2리

1. 개여기동산
2. 고생이부리
3. 거신물 : 장흥동 동쪽에 있는 우물, 물이 거슬러 흘러감.
4. 검은여 : 장흥동 옆에 있는 여로써 빛이 검다.

5. 저머리빌레
6. 괴물수덕 : 초소산
7. 논알원
8. 나신동 : 나신비라 하기도 한다. 논을 기준으로 하여 수원리와 구분된다.
9. 너븐빌레
10. 당수덕 : 장흥동 남쪽에 있는 밭. 당집이 있었다.
11. 망밭
12. 마근창
13. 망전동
14. 무지개동산
15. 버들못 : 버드나무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
16. 병단원
17. 분동산 : 장로동과 장흥동 사이에 있는 등성이
18. 버영못
19. 밥주리못
20. 쇠죽은동산 : 당수덕 동쪽에 있는 등성이. 소가 죽었음.
21. 서근여 : 서끝여
22. 사원이원
23. 소원
24. 서들왓
25. 손들코지
26. 상개동산, 상계동산
27. 소못지(소못논)
28. 스못지낭
29. 스로기집동산
30. 연대동산 : 장로동 서남쪽에 있는 동산. 봉화대(연개)가 있었다.
31. 양개동산 : 장로동 남쪽에 있는 등성이. 양가의 땅이었음.
32. 염소모루 : 염소처럼 생겼다 함.
33. 인수원
34. 이죽은밭
35. 원나래
36. 이장이원
37. 양지빌레

38. 좌중이왓
39. 진질
40. 진질코질
41. 재석동산
42. 정어리수덕
43. 진동산
44. 책망원
45. 창란거리못
46. 창덕이왓
47. 펼목
48. 큰산목
49. 흑죽못. 흑죽물(정우리)
50. 풍채앞
51. 한질이원
52. 향벌려진물

● 신흥리

1. 강덕새미 : 신흥동 서북쪽에 있는 샘. 강씨가 뒀다.
2. 새질드르 : 신흥동 동북쪽에 있는 새길가의 들
3. 배수기왓 : 신흥동 서북쪽에 있는 밭. 배수기의 땅이었음.
4. 새새미 : 신흥동 동북쪽에 새로된 샘
5. 북동동산
6. 중골못

● 바람이름

1. 셋브름
2. 갈브름, 달브름
3. 마과람
4. 하늬브름(서하니, 갈하니, 늡하니)
5. 갈마브름 : 서남풍
6. 신셋브름
7. 산북쇠브름
8. 갈마과람

9. 울지풍(한라산 봉우리에서 불어오는 바람)
10. 동하늬 : 늬새 바람
11. 남천 바람 : 태풍
12. 갯 바람
13. 돛뎡이
14. 사타니

제보자 : 梁氏鍾(男 · 68)
 高文昊(男 · 49)
 洪義杓(男 · 71)

Ⅳ . 農 機 具

● 쟁기부분 명칭

1. 망울
2. 멩애남
3. 등괘걸이
4. 오랑에
5. 부림괘
6. 버올래, 버얼래
7. 꺾는낭(고는낭)
8. 성애, 성해
9. 양주머리 (14)
10. 오리목
11. 무를 (10)
12. 쉐치, 설치 (19)
13. 호랑새역 (13)
14. 뱃
15. 뱃바드랭이
16. 손비줄
17. 돌뎡이뿔

● **고무래의 부분 명칭**

1. 글루네
2. 글루네 조륙
3. 설레, 서얼레(곡식 낼때)

● **보리물, 보리물**

1. 가래기(쇠)
2. 궁기
3. 보리클발

● **도리깨의 명칭**

1. 도깨어시
2. 도깨아덜
3. 도깨틀레 : (재료): 솔피낭, 굴가시나무, 옥가시나무
웃노리

● **기타**

1. 삼 : 갈래죽
2. 따비 : 따비(쌍파비, 외따비, 뱅즐레)

● **연자방어의 분해도**

1. 알바닥
2. 방애웃돌, 방애알돌
3. 안중실, 밧중실
4. 채경, 차경
5. 중실이구멍

● **쇠질매**

1. 도금(보리메로 한것)
2. 등태(형겉으로 한것)
3. 고들대침, 고들개척

4. 소용
5. 등울
6. 질매까지 (앞까지 뒤까지)

● 지계

1. 지겟 까지
2. 지겟새
3. 바지질이남
4. 도금
5. 등태
6. 질빵
7. 지겟친
8. 새
9. 새트는 배

제보자 : 金昌彦 (男 · 73)

民 謠

指導教授：金 榮 敦
 指導補助：尹 致 富
 班 員：安 由 美 (4)
 康 永 生 (3)
 宋 先 禮 (3)
 鄭 光 碩 (3)
 金 京 宣 (1)
 金 愛 蘭 (1)
 金 英 實 (1)

目 次	次
I. 조사경위 및 기술방법	IV. 타령類
II. 勞動謠	1. 오돌또기
1. 방앗돌 굴리는 노래	2. 서우젯 소리
2. 김매는 노래	3. 각설이 타령
3. 밭 밟는 노래	4. 신세 타령
4. 맷돌노래	V. 童謠
5. 방아노래	1. 줄넘기할 때
6. 해녀노래	2. 손놀이할 때
7. 집터 다지는 노래	3. 어희요
III. 儀式謠	4. 약올릴 때
1. 행상노래	5. 자장가
2. 달구노래	6. 기타

I. 조사경위 및 기술방법

여기에 수록된 민요와 동요들은 1987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 동안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에서 현지 조사한 자료들이다.

4일간의 조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일(27일)

오전 11시 경에 임시숙소인 귀덕국민학교에 도착, 오후에 귀덕국민학교 교실에서 홍성아(여·13)를 비롯한 아홉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童謠를 채록했고, 저녁에는 歸德里 속칭 '대왕이'에서 고지영(남·57)·김중화(남·9)·고문호(남·49) 등의 제보자를 통해 <行喪노래>와 <달구노래>를 채록하였다.

제2일(28일)

오전은 본 민요반이 식사당번이었으므로 조사는 오후와 저녁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후에는 제보자를 만나기가 힘들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녁에 두 군데에서 조사했는데, 처음에는 귀덕국민학교 자모회장실에서 모창열(여·60)·양정옥(여·60)·이호연(여·60) 등의 제보자를 통해 <해녀노래>·<맷돌노래>·<김매는 노래> 등을 채록하였다. 이어 '대왕이'에서 마을 이장님의 소개로 홍춘송(남·67) 노인을 통해 <방앗돌 굴리는 노래>·<밭 밟는 노래> 등을 채록하였다.

제3일(29일)

오전에 귀덕2리에 조사 나갔으나 별 성과가 없었는데, 무엇보다 제보자를 만나기가 힘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홍성자(여·66) 노파를 만나 노상에서 <맷돌노래>와 <해녀노래>를 채록했다. 오후에는 전날 자모회장실에서 만났던 이호연 할머니를 찾아가 <行喪노래>와 雜謠를 채록하였다.

제4일(30일)

특별한 조사없이 그 동안 조사한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이번에 채록된 자료들은 민요와 동요의 사실 수록에 치중했으며, 채록된 민요나 동요 중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것들만 수록하였다.

이번의 귀덕리 민요조사는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그 조사대상의 폭을

넓혀 노동요·의식요·타령(唱民謠)을 망라했고, 요새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희와 더불어 새로 번지는 동요까지 뻗었다. 둘째 노동요 가운데 들판에서 연자매(물방에·물 ㄱ레)의 웃돌·알돌을 만들고는 이를 마을 안으로 끌어들여오면서 불리는 <방앗돌 굴리는 노래>는 제주도내에서도 꼭 회귀한 바, 비록 단조로운 사실이나마 이를 채록할 수 있었으며, 여성노동요인 <맷돌노래>와 <방아노래>가 남성에 의해서 불린 자료를 확보한 점도 하나의 소득이었다. 세계는 현장론적 조사방법에 접근하기 위하여 조사진행 상황과 제보자 소개를 덧붙여 보았다.

[제보자1]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 1리 1362번지
고지영, 남·57



귀덕1리 이장님의 소개로 만났다. 몸은 마른 편이었으나 목소리만큼은 우렁차고 심장을 파고드는 애절함이 있었다. 군대생활을 제외하고는 고향을 떠난 적이 없으며, 고향을 지키며 농사짓는 자신들은 애국가라는 말까지 했다. 우리가 학생인 것을 감안한 듯대화 중에서도 표준말을 쓰려는 경향이 많았다. 슬하에 2남5녀가 있다고 했다.

제보자료 : Ⅱ1, Ⅱ3-1, Ⅲ1-1, Ⅲ2, Ⅵ1.

[제보자2]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 1301번지
김중화, 남·49



이분 역시 귀덕1리 이장님의 소개로 조사 첫날 속칭 '대왕이'에서 만났다. 고지영씨와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으며, 호흡을 맞춰 노래해 주었다. 특히 메모까지 하고 나와 노래해 주는 열성을 보여 주었다. 작은 키에 다부진 표정이며 언행이 겸손한 편이었다. 김중화씨 역시 군대생활을 제외하고는 고향을 떠난 적이 없으며 슬하에 2남1녀의 자녀가 있다고 했다.

대왕이의 흰칠한 나무들이 밤바람에 흔들거리며 반주해 주는 속에서 불리워진 김중화씨와 고지영씨의 〈行喪노래〉와 〈달구노래〉는 조사자들의 심금을 울렸는데, 사설 한 마디 한 마디의 애절함과, 곡조의 애련함과, 노래하는 분들의 구슬픈 목소리는 한여름밤의 더운 공기를 식히기에 충분했다.

제보자료 : Ⅲ1-1, Ⅲ2.

[제보자3]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 1286번지
고문호, 남·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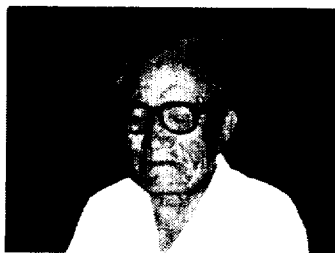


우리들의 조사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분으로, 귀덕1리 이장과 한림읍 관내 새마을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사회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국졸이라는 학력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달변가였다. 고문호씨 역시 군대생활 외에는 고향을 떠나 생활해 본 적이 없으며, 2남1녀를 두었다고 했다. 민요는 잘 몰랐기 때문에 뒷소리만 불렀지만, 분위기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제보자료 : Ⅱ1, Ⅱ3-1, Ⅲ1-1, Ⅲ2.

[제보자4]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 1607번지
홍춘송, 남·67.



이분 역시 귀덕1리 이장님이 소개해 주었는데, 젊어서는 중국·소련 등지까지 다녀왔노라고 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골의 완고한 노인을 만나는 느낌을 받았는데, 회색회색한 머리칼과, 검은 테 안경을 걸친 굳은 표정, 억센 목소리 때문에 조사자들이 압도될 정도였다. 두 시간 남짓 접촉해 본 바에 의하면 매사에 치밀하고, 완고하며,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1남3녀를 두었으나, 외아들을 젊은 나이에 잃고, 지금은 막내딸하고 농사지으며 근근히 살고 있다고 했다.

〈김매는 노래〉에 이어, 14살 때 불렀었다는 〈방앗돌 굴리는 노래〉를 애써 기

억해 내며 불러 주었는데, 노래하는 목소리는 썩 가라앉은 편이었다. 특히, 여성노동요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막내로 태어나 어머니의 일을 거들면서 배웠다고 했다. 노래는 여러 종류 알 뿐만 아니라 잘 불렀으나, 사설을 길게 잇질 못했다.

제보자료 : Ⅱ1, Ⅱ2-1, Ⅱ3-1, Ⅱ4-1, Ⅱ5, Ⅱ7.

[제보자5]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 1036번지
이호연, 여·60.



귀덕국민학교 자모회장택에서 모창열·양정옥 제보자 등과 같이 만났다. 젊어서는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음직한 외모였으며, 목소리 또한 시골아낙 같지 않게 고왔다. 친정은 제주도 화북동이며, 3남3녀를 두었으나 모두 출가시키고, 지금은 남편과 둘이서만 살고 있다고 했다.

타령類는 많이 알고 있었으나 노동요를 잘 몰라 이유를 물었더니, 일을 억척스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 나이에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랐다는 점으로 미루어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분은 여성으로서 특이하게 혼자 <行喪노래>를 불렀는데, 귀덕리와 친정 근방의 <行喪노래>의 시작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정 근방은 뒷소리를 먼저 한다고 했다.

제보자료 : Ⅲ1-2, Ⅳ2, Ⅳ3, Ⅳ4, Ⅴ3-2, Ⅴ4.

[제보자6]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
모창열, 여·60.



듬직한 체구에 명랑해 보였지만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너무 타서 노래가 여러 번 끊겼는데, 나중에는 노랫는 시늉까지 하며 상체를 앞뒤로 흔들며 풍부한 성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제보자료 : Ⅱ3-2, Ⅱ6-2, Ⅴ5-1.

[제보자7]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 1069번지
양정옥, 여·60.



젊어서는 포항·양포·정자포·구룡포 등에 물질을 다녀왔다고 했다. 물질에 대해 묻는대로 서슴없이 답변해 주었으나, 정작 노래를 불러 주도록 청했을 땐 부끄러움 때문에 선뜻 응해 주지 않았다. 이호연·모창열 두 분이 어느 정도 노래하자, 분위기에 젖어서인지 뒤이어 구성된 가락으로 노래했다. 앞 치아가 한 개 빠진 상태였으나, 발음은 그런 대로 정확한 편이었다. 4남5녀를 두었다고 했다.

제보자료 : II2-2, II6-3, V5-2.

[제보자8]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2리
홍성자, 여·66.



마을 사람들로 부터 소개받아 어렵게 만났으나, 조사에는 쉽게 응해 주지 않았다. 자식들이 노래하는 것을 알면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사양하는 것을 애써 간청하여 <해녀노래>와 <맷돌노래>를 들었다. 젊었을 때에는 충청도와 일본 하시마에 물질나갔던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귀덕2리 이장님의 모친이다.

제보자료 : II4-2, II6.

[제보자9]

- | | |
|-----------|-----------|
| 홍성아(여·13) | 한정희(여·12) |
| 조해빈(여·12) | 강경숙(여·11) |
| 정재연(여·10) | 조희자(여·10) |
| 김양희(여·10) | 홍지연(여·9) |
| 정안수(남·9) | |



모두 귀덕1리에 살고 있는 귀덕국민학교 재학생들이다. 조사 첫날 바닷가에 서 만나, 동요조사를 위해 귀덕국민학교로 데리고 왔다. 시골 어린이들이라 수줍음을 많이 타는 편이었으나, 아이스크림을 사다 같이 먹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자, 곧 생기를 되찾아 동요 요청에 응해 주었다. 가장 언니격인 홍성아 양이 노래를 이끌어 갔다.

제보자료 : V1-1, V1-2, V2-1, V2-2, V3-1, V6.

사설표기는 될 수 있는 한 제보자들의 발음에 충실했으며, 제주어 표기법에 준하였다. 어린이들이 부른 동요는 대체로 표준어 표기법을 따랐다.

II. 勞 動 謠

1. 방앗돌 굴리는 노래

- | | |
|----------|---------|
| A. 요돌 | 궁글어가니 |
| B. 어영허야 | 성사뒤야 |
| A. 요돌 | 궁글어간디에는 |
| B. 어허영 | 성사뒤야 |
| A. 진시왕도 | 이돌궁글려 |
| B. 에헤에 | 성사뒤야 |
| A. 춘하추동 | 스시절에 |
| B. 에헤에 | 성사뒤야 |
| A. 밥을짓는 | 쌀을다끝 |
| B. 에헤에 | 성사뒤야 |
| A. 춘하추동에 | 밥을먹을 |
| B. 에헤에 | 성사뒤야 |
| A. 통일천하를 | 못 ㅎ였네 |
| B. 에헤에 | 성사뒤야 |

A : (홍춘송, 남·67)

B : (고지영, 남·57, 고문호, 남·49)

2. 김매는 노래

2-1.

여긴너랑	사데로구나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무너나나라
검질짓고	굴늦인받되
곱은쇄로	여이멍맨다
저기가는	총비발아기
요일호술	도웨여도라
[청취불능]	

[홍춘송, 남·67]

2-2.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야	무너나나라
여긴너랑	사데로구나
양석싸라	섬이나가계
총각차라	물에나들계
여긴너랑	사데로구나
사데불렁	요검질매계

[양정옥, 여·60]

3. 발 밟는 노래

3-1.

- A. 어허야돌 요산중에 놀든 송애기들아 노픈테를 불러도라
B. 어러러돌돌 어러러
A. 어허어허 도량하랴 산들산들 선들하니
B. 어러러어러러
A. 어디를 갓느냐보구나
B. 어러러돌돌
A. 어허여어허랴 어허랴 어러러돌돌
B. 어러러돌돌
A. 요산중에 놀든 송애기들아 노픈 동산만 불러그네 어허어라
B. 어허라

A : (홍춘송, 남·67)

B : (고지영, 남·57, 고문호, 남·49)

3-2.

어 령 떠 령 어 러 러 러 러 러 어 려 러
앞명에 들어사건 죽근죽근 불릅시다
어러러러러러 어러러러러러
어령떠령 산이로다 물이로다 어령 어러러러러러 어러만
고구리랑 나건 마께만씩나게 하여줍서 어러러러러 어러러러러러

(모창열, 여·60)

4. 맏돌노래

4-1.

이여이여	이여도항랑
울멍가민	놈이나웃나
대로한질	놀레로예라
이여이여	이여도항랑

적은삐에는	짐하영실언
추즈과탈	양새에드난
요내목숨	살아올근심
이여이여	이여도항랑

(홍춘송, 남·67)

4-2.

이여이여	이여도항라
독은울영	날이나쌌다
나사울영	어느날새리
이여이여	이여도항라
소낭에빅름은	불미나훈다
오름에돌은	등을단듯살을메난다
이여이여	이여도항라

(홍성자, 여·66)

5. 방아노래

이연이연	이여도ㅎ랑
드리손당	큰애기들
쇠쿨방에	새글러간다
이연이연	이여도ㅎ랑
너랑죽건	자동차뒤편
날랑죽건	운전수뒤편
이연이연	이여도ㅎ랑

(홍춘송, 남·67)

6. 해녀노래

6-1.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우리베는	출나무로
지은베라	잘도나간다
이여도사나	

요베차락	꺼꺼나진덜
부산항구	가시남이
없을말가	이여도사나
요베차락	부러나진들
목포항구	곧은남이
없으리야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요목저목	울단목은
감아나들멍	지엿가자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산아산아	수영산아
동서으로	질어나나라
전싱곳인	이내몸도
흔번활발	질어나보게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지어라지어	아니나지엿
문가더라	이여싸나

(홍성자, 여·66)

6-2.

이여싸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젓일대로	젓어나보게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싸	이여도사나 이여싸
젓일대로	젓어나보게
어기여차나	어기여
어기여로	어기여차나

베또롱알을	눔을준들
이내네사	눔출소냐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이여도사나	

앞발로랑 허우치멍
뒷발로랑 거두치멍
이여도사나 어기여차나
젓알대로 젓어나보게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설룬어멍 무신날에
날났던고 이여도사나
어기여차나
젓일대로 젓어나보자
이여싸나 이여도사나

청청훈 하늘엔
준별도 많구요
이내야 가심속엔
수심도 많구나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어떤사름 팔제종앙
고대광실 노픈집에
앉아서 호강애기
훙는구나 우리어멍
무신날에 날났던고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훈푼두푼 버실어논금전
정든님술잡에 다들어간다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젓일대로 젓어나보게
이여싸 이여싸나

청청호	하늘엔
준별도	많구나
요내야	가심엔
수심도	많구나
이여도사나	

설룬어멍	놓아두곡
정든남편	놓아두곡
젓먹는애기	떼어놓고
삼시곶영	물질 혼영
훈푼두푼	모여논금전
정든님술잡에	다들어간다
이여싸나	이여도사나
젓일대로	젓어나보게
이여싸나	

앞발로랑	허우치멍
뒷발로랑	거두치멍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어기여차나	

돈아돈아	말몰론돈아
돈이아니민	한강바당에오랑
이물질 혼영	훈푼두푼
버실명도	사는고
이여싸나	
젓일대로	젓어나보게

(모창열, 여·60)

6-3.

어기여	어기여
어기여라	방에로구나
앞발로랑	허우치멍
뒷발로랑	거두치멍
이여도사나	어기여차라
차라차라	차라베경
킁킁지영	지영가계
아니나지영	못가더나
요만지고	못갈내가
아니로구나	이여도사나
차라차라	킁킁지멍
지고가자	지고가자
아니지영	못가더라
어기여차	차라차라
차라베경	킁킁지멍
지고가자	지고나가자

강원도	금강산
금인줄	알았더니
여꽃마다	눈물이
저절로	나는다
이여도사나	차라차
차라베경	젓고가자

요나이에	요네차락
남줄내가	아니로구나
킁킁지멍	먼딴사람

보기 좋게	젓고 가자
이여도 사나	차라 차라
차라 배경	차고 가자
저바당에	저물속은
지품야품	알았겠지
훈집살앙	간장통물랑
나의 간장	다태우네
어기여차	차라차
차라배겨	킁킁지멍
지고나가자	

앞이얏인	고사공아
뒤에얏인	이사공아
요만지고	내뭇갈리
아니로구나	
요만지고	뭇가더냐
이여도싸	이여도싸
킁킁지멍	지고가자
아니지영	뭇갈소냐

우리야	임으은
어딜가고	[청취불능]
올출을	영모르네
어기여차나	차라차라
차라배경	킁킁지멍
지고가자	
아니지영	뭇가더냐

(양정옥, 여·60)

7. 집터 다지는 노래(원달구 소리)

어엥허야 영허로다
이 집을지어 십년이민
아들을나면은 효조를놓고
딸은나면은 열녀를난다
 어엥허야 성사뒤야
개는나면은 황구를놓고
소는나면 황우를난다
 얼렷렷 성사뒤야
이 집을지어서 누구를줄까
억대족손을 물려나주지
 얼렷렷 성사뒤야

(홍춘송, 남·67)

Ⅲ. 儀 式 謠

1. 행상노래

1-1.

- A. 어어어허어어 어어어허어어
 어기여롱창에 어화로다
- B. 어와롱창에 어화로다
- A. 산천초목은 짧어지고
- B. 어와롱창에 어화로다
- A. 인간청춘은 늙어지누나
- B. 어와롱창에 어화로다

- A. 북망산천이 얼마나 좋길래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부모동생을 이벨하고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갈적올적엔 정들여놓고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이벨이두글자 누가지어서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간다못간다 얼마나 울어서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정저장마다가 한강수뿔누나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이팔청춘 소년들은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백발보고 웃지말어라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우리도늙어서 백발이뿔면은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요모냥요꼴로 늙어지누나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멍사십리 해당화는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꽃이나진다고 서뤄말고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멍년춘삼월 다시오면은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꽃도나보고 임도보네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간다못간다 얼마나 울어서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정거장마다가 한강수뿔누나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A. 은하착교가 다무너졌으니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A. 건너나갈길이 막연호도다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A. 술담배먹을적엔 친구도많건만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A. 공동묘지갈적엔 나혼자로구나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A : (고지영, 남·57)

B : (김중화, 남·49, 고문호, 남·49)

1-2.

[거리 안에서]

에야야 야노야 이나노 난시노 난시나 니나노 난시노 부리로다
 산에올라서 옥을케니 이름이좋아서 양산이나
 에야야 야노야 이나나 난시노 난시나 니나노 난시노 부리로다
 저성질이 멀다흔들 창문바피보다 더멀소나
 에야야 야노야 이나노 난시노 난시나 니나노 난시노 부리로다
 멍사십리 해당화야 부러진다고 서러워마라
 에야야 야노야 이나노 난시노 난시나 니나노 난시노 부리로다

[거리 밖에서]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이산저산이 양산간에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울고가는것은 저기로다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산에올라서	옥을캐니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이름이좋아서	양산이냐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어서어서	시간바빠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이웃벗님네	췌송호오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어린처자	버려두고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산에올라서	옥을캐니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이름이좋아서	양산이냐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맹사십리	해당화야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부러진다고	서러워마라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인자가면	언제오나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오만날조를	두고가자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인자가면은	언제오나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맹년오름엔	[청취불능]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가자가자	어서가자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이호연, 여·60)

2. 달구노래

- A. 에에에 달구
에에에 달구
에에에 달구
삼식번소리채 들고나놀자
- B. 에에에 달구
- A. 산도만지 물도만지
- B. 에에에 달구
- A. 청룡백호를 들어다보니
- B. 에에에 달구
- A. 청산으로 안장호고
- B. 에에에 달구
- A. 대혜로 국세잡아
- B. 에에에 달구
- A. 요집터가 생겼구나
- B. 에에에 달구
- A. 온천하 부귀영화
- B. 에에에 달구
- A. 여기가 다들엇구나
- B. 에에에 달구
- A. 장호도다 장호도다
- B. 에에에 달구
- A. 천하만국 제일이라
- B. 에에에 달구
- A. 다물ㄹ치 모아진접군
- B. 에에에 달구
- A. 칠성ㄹ치 벌어지명
- B. 에에에 달구

- | | |
|----------|-------|
| A. 즈진달구 | 전체제로 |
| B. 에에에 | 달구 |
| A. 앓음달구로 | 들어간다 |
| B. 에에에 | 달구 |
| A. 누움달구로 | 들어간다 |
| B. 에에에 | 달구 |
| A. 거울달구로 | 들어간다 |
| B. 에에에 | 달구 |
| A. 칠성ㄹ치 | 벌어진접군 |
| B. 에에에 | 달구 |
| A. 다물ㄹ치 | 모여진접군 |
| B. 에에에 | 달구 |
| A. 접군님비 | 모여듭서 |
| B. 에에에 | 달구 |
| A. 은이잇어 | 은을출까 |
| B. 에에에 | 달구 |
| A. 금이잇어 | 금을출까 |
| B. 에에에 | 달구 |
| A. 금생여수 | 아니여든 |
| B. 에에에 | 달구 |
| A. 금이어디 | 잇사오며 |
| B. 에에에 | 달구 |
| A. 옥출곤강 | 아니여든 |
| B. 에에에 | 달구 |
| A. 옥이어디 | 잇으리카 |
| B. 에에에 | 달구 |
| A. 금과옥은 | 천물이라 |
| B. 에에에 | 달구 |
| A. 어쩔수가 | 없읍니다 |
| B. 에에에 | 달구 |

A : (김중화, 남·49)

B: (고지영, 남·57, 고문호, 남·49)

IV. 타 령 類

1. 오돌또기

오돌또기 저기 춘향이 나온다
달도 좋고 내가머리로갈까나
 둥그대당실 둥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돌도붉고 내가머리로갈까나

한로산허리엔 시러미본숭만숭
서귀포혜너는 바다에든숭만숭
 둥그대당실 둥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돌도붉다 내가머리로갈까나

오돌또기 저기 춘향이 나온다
돌도 좋고 내가머리로갈까나
 둥그대당실 둥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돌도붉다 내가머리로갈까나

(고지영, 남·57)

2. 서우젯 소리

아하아하요 에헤에헤요
떴다떴다 사랑공판에돌이떴다

아하아하요	에헤에헤요
당껏구나	모껏구나
이내심중에	다모껏구나
아하아하요	에헤에헤요
어기여차	두기여차
사랑노래를	불러볼까
아하아하요	에헤에헤요
놀당갑서	자당갑서
저돌이지도록	놀당갑서
아하아하요	에헤에헤요

(이호연, 여 · 60)

3. 각설이 타령

얼씨구씨구	잘혼다
품바품바	잘혼다
흔글제만	틀려도
문세쪽이	틀린다
얼씨구씨구	잘혼다
품바품바	잘혼다

작년에왔던	각설이가
죽지도않고	또왔네
웨발은돌은	돌촉이
두발은돌은	깜마귀
식발은돌은	분무기
늑발은돌은	당나귀
음음	잘혼다
품바품바	잘혼다

얼씨구씨구 잘훈다
얼씨구씨구 잘훈다

훈놈은간디 웨입질
두놈은간디 장구판
식놈은간디 화툫장
늑놈은간디 불기장
다섯놈간디 옹기장
 음음 잘훈다
 품바품바 잘훈다

무도세기 조천장
[청취불능] 성원장
갓다라와다라 애월장
구경종다 한림장
 얼씨구씨구 잘훈다
[청취불능]

(이호연, 여·60)

4. 신세타령

숫한몸에 빙들어놓고
간장만타는 내로구나
우왕웅담으로 집을짓고
청심환으로 낭불을매어
녹용으로다 구들을지퍼
삼신산불로초에 미음을끓여서
먹을지라도 이나이에
낮기는 만무로다

(이호연, 여·60)

V. 童 謠

1. 줄넘기할 때

1-1.

꼬마야꼬마야 뒤를돌아라
꼬마야꼬마야 만세를불러라
꼬마야꼬마야 땅을짚어라
꼬마야꼬마야 잘가거라

(홍성아 외 8명)

1-2.

똑똑
누구십니까
학생입니다
학생이면 신발벗고 들어오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홍성아 외 8명)

2. 손놀이할 때

2-1.

비네비네 빈데뿡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우리 우리는
 주먹 뽕
 가위 뽕
 바닥 뽕
 도리도리 징경이세여

(홍성아 외 8명)

2-2.

빵먹고빵먹고 빵빵먹고먹고
 너먹고나먹고 요리주고저리주고
 맛있게도남남 맛있게도남남
 우리모두앉아서 가위바위보

(홍성아 외 8명)

3. 어휘요

3-1.

원숭이똥구멍은 빨개
 빨간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건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건	하늘
하늘은	푸르다
푸른것은	바다
바다는	짜다
짠건	소금
소금은	희다
흰건	광목
광목은	질기다
질긴것은	소가죽말가죽

(홍성아 외 8명)

3-2.

까마권	까옥
생인	쪼쪼
핑은	졸락
흰둥	볼락
막개	츄막
고도리	뚜옥

(이호연, 여·60)

4. 악울릴 때

돌래떡이	안바뀌잇나
오사까전차가	앞뒤가잇나
여즈강알에	불알이가잇나
중놈대 갈빡에	상투가잇나

(이호연, 여·60)

5. 자장가

5-1.

자랑자랑	윙이자랑
우리아기	돈밥먹꼭돈줍자라
윙이자랑	윙이자랑
우리아기	재와주라
느네애기	재와주저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자랑자랑자랑
우리애기	자는소리
놈의애기	고치먹엉
우는소리	자랑자랑
윙이자랑	잘도잔다
잘먹꼭	윙이자랑
자랑자랑	아기자랑
우리어진	할망손지
자랑훔져	윙이자랑
자랑자랑	아기자랑
우리아기	재와주라
느네애기	재와주저
윙이자랑	윙이자랑
자랑자랑	아기자랑
우리숫놈자랑	어진이자랑
순뎨이자랑	자랑자랑
윙이자랑	아기자랑

(모창열, 여·60)

5-2.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우리아기	재와줍서
느네아기	재와주마
아니아니	재와주당
발모개기	손모개기
무꺼당	지픈지픈
한강물에	더리춧닥
내춧닥	호리여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우리착훈	할망손지
돈밥먹곡	돈줍을재와줍서
어질고착훈	할망손지
어서누영	줍을자라
아니아니	재와주당
발모개기	손모개기
무꺼다근	뒷밧더레내꺼블져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자는건	줍소리
노는건	눔소리여
어서어서	누영자라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우리착훈	어진할망손지
자는소리	노는소리 나는구나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우리아기	재와도라
느네아기	재와주마
아니아니	재와주당
발모개기	손모개기
무껴당	지픈지픈
한강바당에강	들이춧닥
내춧닥	호리여
윙이자랑	윙이자랑
자랑자랑	자랑자랑

어서누엇	좁을자라
무사무사	아니잔
영나를	즈들람디
어서눅곡	좁을자라
윙이자랑	윙이자랑
자랑자랑	자랑자랑

(양정옥, 여 · 60)

6. 기타

닭장속에는	윤시내
벗어나고파	벗어나고파
공부시간엔	심형래
잘모르겠는데요	
점심시간엔	김병조
술가락뵈라	
체육시간엔	김병조
나가놀아라	

(홍성아 외 8명)

說 話

指導教授：金 相 助
班 員：金 恩 希 (3)
姜 聖 大 (3)
愼 希 範 (2)
高 大 勝 (1)
文 惠 暎 (1)
金 京 姬 (1)

뱀굴이야기

* 조사자들이 제보자를 찾았을 때 아침식사를 막 끝내고 있었는데, 얘기를 청하자 쉽게 응락했다.

제보자는 오랜 동안 교육계에 몸담았던 분이어서 사투리를 잘 쓰지 않았으며, 얘기를 함에 있어서도 흥미를 가미하는 감이 없지 않았다. *

지금 ㄱ트민 도지사(道知事)와 ㄱ치 제주도로 영천 이목사(永川 李牧使)가 와서 있었는데, 이 제주도는 남군(南濟州郡) ㄱ고 북군(北濟州郡)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남군, 저(조사자를 지칭함) 젊은 분네 모슬포로 저쪽데레 가며는 중문(中文), 서귀(西歸), 저 남원(南元) 가 가민 거기 토산(兎山)이 아주 심이 썬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낱기 전인 일인가봐요. 그 때 아무래도 영천 이목사 때라 이러니, 원간 제주도에서는 토산 심(힘)이 씨여 가지고 억제허기가 어려웠대요.

그러면 어떻 했는고 하니 그때는 고려 이후니까니 이씨 조선 촌지 전인지, 요거 이씨 조선 초긴지도 모르죠.

물론 아무 때도 이 장사가 잇엇지마는 그때는 아마 고려장으로 되엇던가봐요. 그러며는 늙어가민 혼 칠 팔십 되영 늙어가민 만물재단(萬物財壇)을 잘 출려 놓고 좋은 옷을 맨들어 놔 입지고 그 짐녕굴(金寧窟)에 가서 앓져 낫대요. 앓지며는 이진 어떻게 앓지는고 하니, [잘 잡수시고 신선뵈서 하늘 우로 올라가 주십서]. 그저 어둔 때지, 어둔 때. 지금 사름덜은 그래, [아, 잘 잡수시고 신선뵈어 올라가 주십서] 하여서 자녀(子女) 분네가 강(가서) 이제 하직허고 집에 왕 그자 신선 뵈영 올라 갈 때만 지드리는디. 이제 뒷날 가서 보면 웃어져. [아, 이거 신선뵈언 올라 갔구나] 늙은이가.

영천 이목소가, 그러니 그렇게 뵈어 가민 그 지혜가 높고 그렇게 속질 안허 거든. [이거 안뵈다]고. 그계 신선뵈영 가는 게 아니고 그디(거기에) 큰 구렁이 배염이 잇는디, 앓지만 그 사름을 오꼳(그만) 들러 먹고, 들러 먹고 해서 크기가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잇는 거거든요.

아, 이놈 이방안타 말해 가지고, 「장점을 준비허라」고.이젠 거기 가서 시기는대로 나오니 뭐 그 까짓거 ㄹ려 데끼니 문제 없거든. ㄹ려 데껴서.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웃거든.

아니, 신선뵈영 어딜 올라 가겠어.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었는디. 그 지금 말한 토산 귀신들이 말허기를, “오늘 배를 띄여서 육지에 가서 부뜨민(도착하면) 호고, 그렇지 안허민 당신 목숨은 살아나지 못헌다.”고.

해서 것도 살기 위해서 그냥 배 타고 육지 간 떨어지자 말자 아주 막 대풍이 불어 가지고 죽을 뻔 해났다고. (조용봉, 男)

남편 원수 값은 이야기

* 조사자들이 제보자를 찾았을 때 제보자는 마루에서 동네 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총기(聰氣)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했으나 미리 조사되어진 얘기들을 들려 주었더니 몇 가지 알고 잇는 얘기들을 들려 주었다.

제보자는 나이가 들어 매우 거동이 불편했으며 얘기하는데 숨이 가쁘고 기억력이 없어 보였다. *

남저들 둘이 친구라. 여제는 이제 그 친구가 그 여줄 막음에 드니,
“우리 산에 가그네(가서) 사농허레 가자.”

허연, 사농허레 올라 갔저.

[조사자: 아, 그 남자 친구들]

음, 그 남저 친구들 둘이.

올라 간디, 그 남저영 ㄹ때 간디, 아니 막 어두워 가나네, 그 친구만 오라서
(왔어). 이녁 집이 남편은 아니 오고. 게난,

“어떠난 이제 아니 오랏젠?”

“어디사 간디 느시 ㄹ때 가겐 불르당(부르다가) 버천(치쳐서) 그냥 오라서.”

영허지. 영허난(이러니까) 그 여제광, 안 오난 이제 ㄹ때 산단 말여.

[조사자, 청중: 아, 친구 각시광]

친구 어시데껴 분겨여.

경헨 살단 그냥 얘기덜 낱고 살아서. 홀 수 엇이. 여제란게 홀 수 엇주게.

[조사자: 예]

살단 그 여제가 비가 막 크게 오나네(오니까), 각시 동무를 배여네, 이젠 니
(風) 잡아 드렌.

옛날은 니 이서났지이. 니 몰라. 이 청년들은.

영 동무릎에 업더져네, 니 잡아 가난게, 속숨허주마는. 게메이, 살인(殺人)
은 묻어지지 않는다는 거라.

[청중: 혼자 ㄹ릅서게.]

경허난 마당에 막 비 오멍 중트지이? 부글락부글락허게 중터가나네, [히히
히] 웃으멍,

“뚝허게 저 비 중트는 거 저 사름 본 남편네 뚝 피 부끄는 것 답다.” [웃
음]

“아휴, 게난 어디서 경(그렇게) 피 부끄멍 죽음데강? 아고, 나 그 놈의 죽석
원수보감(怨讎報)? 못허영 허는디, 강(가서) 그 자릴 강 ㄹ르쳐 드렌?”

죽어난 자릴 가 보난 뼈(骨)만 소드락해서. 몇 년 쉼난 게.

계난 춤 그 여자가 [그 놈의 죽석 어느 제랑 나 원수보감허렌] 했고렌. 그냥 허멍(하면서) 문딱(모두) 손톱, 발톱 다 치매통(치맛자락)에 다 주서 담안(주워담아서), 이젠 바로 포청에 들어 가서.

아맹아맹 현 남저가 아무 적에 아무 적에 이제 [사냥 ㄱ때 가겐 허멍 간 집 의서 왕 ㄱ찌 살멍(살면서), 이젠 죽식 나멍 살앗고렌.]

그 때 그 사람은 그냥 포청에 간 내어 놓지 안해서. 강간죄, 살인죄하고 두 가지라부난.

경 해낫주 옛날은. 경헌디 이 춤 살인 묻어지는 딴 웃어.

(김복. 女)

장사 고 삭배

고 석배엔 현 사람이 힘이 어떻게 씨엿는지 이 사름히고 당할 수 웃이 썬 사름이여. 장가는 어딜 들었냐며는 저 판포(板浦) 장갈 들었는디, 처가침의 세벨 안갈랴고 허니까 각시가 말허기를,

“아, 여보시오. 해가 넘어 가는데 세벨 혼 번 가봐야 될 거 아니요.”

“세배 갖다 나 올라오젠 허문 배가 고과서 걸음을 못 걷는디, 가민 밥이라도 혼 끼니 줘야지 아 배고파 걸음을 못 걷는디 뭐허래 그디(거기에) 가냐.”고.

“안 간다.”고.

경허니까 그 고 삭배 부인이 판포(板浦)에 내려 왔던 모양이여. 아, 이젠, “어머니, 사위 오라견(왔거든) 밥 혼 끼니 담암지기(그렇듯하제) 해 줘서. 배 고판 못 오라가켄 다신 세벨 안 오켄 허니 이저 어떻 그런 법이 잇습니까?”

“요놈의 죽식 배가 얼마나 큰 거랑 영 햄신고?”

아, 이젠

“잘 내려 보내”렌.

내려 왔어. 내려 왔는데, 장모가 밥을 헨 큰 낭푼이(양푼) 하나 허니까 미끈(모조리) 다 들러 먹고,

큰 처남이 이걸 얼뵈어 불라고 말여.

“매부 우리 집의 좀 갑시다.”

“아, 경허주”

맛 존 거 주민 가켄. 가니깐 도야지(돼지) 고기 술만 썰어 논 저 말여, 큰 그

릇 하나 주니깐 다 먹거든.

셋 처남네 집 가니까 토종 막걸리 큰 그릇 하나 주니깐 통채 들러 먹어.
셀 죽은 처남신디 가니까 구제기(소라), 술마완 그냥 오라 논 거 말야. 그
거 그냥 죄다 다 먹었어. 얼마나 먹은 거여. 밥, 도야지 고기, 술, 구제기 막
먹어 제치니깐 혼 번 빙 자당 가켄. 그러게 죽은 처남이,

“저 놈의 죽식 오늘 튀진다(죽는다).”

고 말여. 그대로 먹어 노니깐. 자, 도야지 고기, 막걸리, 그 구제기 오라 논
거 췌다 오란 먹어 노니깐 오장이 췌딜 수가 없을 것이다.

이래서 인제 누니(누우니) 줘미 안 오네.

“처남, 나 잘 먹어서. 갈로고”

장모안티 와서 인제,

“잘 먹고 잡니다.” 허니까,

“그래. 밤 길 잘 다녜 올라 갓당 또다시 와 이?”

“예.”

가다 보니깐 뭐 처가침의서 가정 가켄 주니까 등어리에 짊어지고 올라 가는
디 송년(홍년)들어 노니깐 그 도로가 좁은데 사람 네 사람이 있다가 고 삭배 줄
물랐지.

“거, 정(지고) 가는 거 뭐여?”

“우리 장모가 주니깐 나 집의 가서 물어 보기 전엔 모르지. 뭇싸(무엇이) 들
었는지.”

“이 죽식 봐. 거 우리 줘.”

“주다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너의 줘.”

영허니까,

네 놈이 덤벼들젠 허난 짐 진냥 윗에 보니깐 풋가시가 잇거든. 심영(잡고서)
확 좁아 땡견 양착(양쪽)으로 허연 댐비는 걸 패부린 거라. 거 니(네) 사람 풋
가실 혼 번 홀터 불민 뭐 어디 [청취불능] 다 도망쳐 부러서. 내중(나중에) 아
니까(알아보니까) 고 삭배라서.

“저 놈의 새끼 큰 일 날 뻔했다.”고.

“우리 건드리지 안허길 다행이지 건드려 봐시민 그 풋가실 내들러 봐시민 우
린 죽었다.”

이런디 그 해 8월 초열흘 되니깐 장인이 사위 빌영 출(꼴)이나 혼 번 베볼
까,

“미안허주마는 출 혼루만 베 취.”

“경협주(그렇게 하지요), 뭐 헐 때랑 허래 읍서 베어냅주.”

세로 이젠 밥허영 잔뜩 시전 올라간 보니깐 비여(베어) 젓힌 거 보니 저푸게
(무섭게) 비여 낫단 말여. 가시고 출이고 혼것드로(모조리) 막 비여 잣혀 부러
어.

“사위, 밥 먹영 비계.”

“오십테강(오셨읍니까).”

밥을 좀 먹고,

“그 가시 ㄹ튼 걸랑 비지 말아 취.”

“어느 저래 가시 꼴리꼭 경(그렇게) 빙니깡? 혼것드로 비영 무플 때 꼴라그
네 무경 갑서.”

아니 이거 비여 논 걸 보니까 도저히 무플 수가 없어. 사위 ㄹ라 이제 무꺼
드렌(달라고) 허난 가시고 뭐고 최다 무꺼 냐어.

“이거 어떻 행 맥이느니?”

“집이 강 늘엇다그네 못 빠건 세자길 탁탁 찍영 세 앞드레 놓 내불민 가신
안 먹고 출만 다 먹읍네다.”(허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 낫다고 허뻬.

(용춘송, 男)

월계 진좌수

어떤 양반을 만나 가지고 인살 드리니깐,

“어허, 나 짚은 모르지만 이 부락에 월계 진좌수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월계 진좌수 돼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잇냐며는 저 셋(西)동네 살고 이 동 동
네 지금 서당에 오쟁(허고자) 함며는, 아척(아침)에 오다 보며는 예쁜 계집아이
가 구슬을 주면서,

“이걸 입에 물엇당 바까(빨아) 달라.”고.

“입에 물엇당 자기 달라면 주라.”고.

그저 허다 보며는 시간이 늦이니깐 선생이 말하기를,

“너는 뭐 험다고 그렇게 매일 늦느냐?”고 말야.

“늦는 원인을 말해 봐라.”

“선생님, 그제 아니고 오다가 보며는 저 냇가에 강 어떤 계집아이가 하, 구슬을 주면서 ‘입 아(입을 벌린 모양) 허랭. 나의 입에 물엇당 자기 드랭(달라)호고 거 몇 차례 허다가 허는 브름에 늦었습니다.’고.

“음. 오늘은 그랬다고. 내일은 오랑 그러거든 그 구슬을 숨켜 불러.”고.

숨켜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름을 보민 상통천문하달지리(上通天文 下達地理) 만물 박사가 돼 가지고 홀룡현 사름이 쥘다.”

하는 거여.

“아, 그럼니까?”

뒷날은 이제, 오다 보니 그 놈의 계집아이가 있어서 아, 거 구슬을 주니깐 숨켜 부렸어요. 숨켜 부니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름을 보렘 했는디, 하늘 보고 땅 볼 어간(사이)이 없고 사름이 나타났단 말여. 경허니깐 사름에 대해선 박사가 쥘어. 의사지. 참 홀룡진 의사디. 누가 무슨 병 걸렸다면 와 가지고.

“아, 무슨 병을 걸렸읍니다.”

한 부인이 갑자기 남편이 죽어 가니깐 그 월계 진좌수신더 물레(물으러) 간져. 가는디, 아 거 임무천지(林無天地) 사름이 잇는디 어떤 남자를 만나 가지고 겁탈 당헌거라말여. 남 밧디서(밭에서). 이제 겁탈 당해서 인제 허니깐, 기분 나쁘지마는 이제 그 월계 진좌수한테 가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왔는데, 그 무슨 병이고 무슨 약을 허면 좋겠읍니까?”

이러니깐,

“오다가 어떤 일을 당했지?”

“네, 당했읍니다.”

“가다가 치마나 벗영 눈이나 덮어 똥 가. 남편 대리로 그 사름 죽었다.”고 말여.

그렇게 명의(名醫)라 말여. 혼 번 탁 허민, 견디(그런데) 이 사름이 그렇게 홀룡했던 모양이여. 장기를 두는데, 월계 진좌수가. 장기를 똑딱똑딱 두는데 인제 장기 두젠 벌견(벌여) 장기나 다 끝나민 무슨 애길 들어 불라고 혼 사름이 만이 앓았단 말여. 바람이 오늘 ㄱ티 쟈디 바람결에다 어떤 나무 이파리가 딱

장기관에 왕 떨어지거든. 떨어진 죽영 영 배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앓았던 말야.

“아, 어떻게 해서 오셨소.”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아, 선생님 약 지시는데.”

“이 나무 이파리 강 달려서 맥여.”

아, 나무 이파리 달링 맥이니까 좋아 분겨여, 그렇게 훌륭한 사름이었던 모양이여.

건디 사름에게는 그렇게 훌륭했디,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는 상통천문하 달지리(上通天文 下達地理)를 다 허게 댜건디 사름만 봐 가지고 사름을 그렇게 훌륭히 했다고.

(홍춘송, 男)

장사이야기

제주도에서 켈 힘썌 사름이 잇었어요. 힘이 제일 장사가 잇었는디, 이 말을 들어 봤는지 모르겜어요. 이것도 전설인디.

부썌(夫氏)데, 부 대각(夫大角)이라고. 아덜 성제를 데리고, 이 사름이 대포(大浦) 사름이었던 모양이여. 저 중문면(中文面) 대포리(大浦里) 사름인디, 옷 한질로 제주시엘 가는디 가다 보니깐 짱룩이 둘이 이제 찢렐(싸움울) 부뜨고 잇어.

[조사자 : 짱룩 마썌 ?]

짱룩이, 사슴이지.

싸움울 허고 잇으니깐, 성제지. 아버지는 뒤에서 뭐 벤손가 뭐 보는디,

“아부지, 아부지. 빨리 오십서. 빨리.”

“왜 그러냐?”

“이 짱룩 두 마리가 싸움울 부뎠는디 아, 이저 어떠면 좋겜어요.”

“야, 이 머저리 같은 놈덜아, 딱딱 조져라. 대팍 조져라.”

뿔이 부서지면 아무라도 죽을 거 아냐 말여. 싸움울 허는 걸 딱 붙잡안 둘이 딱 붙잡은 뿐이지 탁탁 마주치진 못했던 거여. 마주치질 못해 가지고 결국은 부 대각(夫大角)씨가 가 가지고 탁탁 부닥치니깐 뿔 다 부서전.

[조사자 : 부 대각허민 저 아버지 ?]

아버지. 그러니깐 힘이 장사지. 성제가 부떠 가지고 싸움허는 걸 딱 붙잡은 것도 힘이 장산디.

“마주쳐라. 마주쳐라.”

마주치질 못하고 강 붙잡은만 현디, 아버지 가 가지고 탁탁 조지니깐 뽀이 다 부서져 가지고 두 놈을 다 잡앗대요. (홍춘송, 男)

허 응 아 기

* 조사자들이 제보자를 찾아 나섰으나 약속된 제보자를 만나지 못해, 돌아오는 길에 마당에서 보리 이삭을 말리고 있는 우연의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조사자들이 얘기를 청하자 처음에는 잘 모른다며 우리들의 제의를 일축했으나 몇 번 부탁하며 얘기를 청하자 이야기할 뜻을 비치고는 어느 정도 상세히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

여자가 친정칩의 살명 아긴 두 아거나 나곡 살아나신디. 예, 집이 원간 큰 집이라노난 구들이 아홉 개, 이제 마당. 아(앞에 말한 것이 잘못되어 다시 말하려 함), 구들이 열 개, 마당이 아홉 개. 경허난 아홉 마당 썰고 열 두 구들 다고 허여두고 이제 뒷동산에 건불리래(바람 쏘이러) 간 보난 허응아기 잡으레 오는 채시(差使)가 탁 뒤따르멍 허응아긴 증은(줄은) 모르고,

“어드레 가문 허응아기네 집곤?”

허난 허응아긴 이제,

“어명헌 일로 들엄수겐?”

들으난, 이젠,

“허응아기 잡으레 오는 채시노렌.”

이젠 저 망(갓양태)만 부든 갓 허여네, 이제 귀에 걸고 깃(깃)만 부든 도폭 허여네 이젠 야개기(목)에 걸고 목만 부든 질목(양말) 신꼬 허연 이젠 오멍,

“허응아기네 집 어느 곳곤?” 허난.

“요 재 념영 저 재우다. 저 재 념영 요 재우다.”

허연, 이제 막 먼 달로 돌아갈 걸로 허여된 지(자기)는 툨락 튀어오란,

“아이고, 아버님아. 아고 아버님아. 날 이젠 잡으레 오는 채시 뒷동산에 득

달(도달)했다. 아이고, 날랑 이제랑 쇠(牛)로 대명(代命)시켜 줘서. 물(馬)로 대명시켜 줘서.”

“쇠도 나두민 밧갈아진다. 물도 나두민 밧볼려진다. 는(너는) 뇌(네) 명에 가라.”

경허난, 이제 해여 볼 말이 엇언(없었다). 경허난 이제 어머니사는 방에 놀러 드런,

“아이고, 어머님아. 어머님아. 날 잡으레 오는 채신 뒷동산에 득달했다. 아이고, 날랑 쇠로 대명시켜 줘서. 물로 대명시켜 줘서.” 허난,

“쇠도 나두민 밧갈아진다. 무신 물도 나두민 밧볼려진다.”

[조사자 : 어명도 경ㄹ라마썸?]

어명도 경ㄹ라.

“늬은 종으로 대명시켜 줘서.” 허난,

“늬은 종도 나두민 불술마진다. 는 뇌 명에 가라.”

허난, 이제 채시 딱 경 햄시난, 이제 득달허연 글렌(가자고) 허난, 이제 저승엘 갖거든.

저승을 가난 이 사름은 이제 밤인 갖맹지 닷 동을 차젠 허고, 낮인 물맹지 닷 동을 차렌. 저승범으로 말허난 그걸 차멍, 얼굴이 잘도 고와나신고라, 어영귀 ㄹ튼 양지(얼굴)에 추승같은 눈물이 두룩두룩 털어져가난 이제 저 시상에 사름은,

“아, 무슨 따문에 이제 경 눈물이 두룩두룩 남시닌?” 허난,

“아, 열 다섯 난 낭군도 싯고(있고), 혼 술 난 아기에 두 술 난 업개에 뇌똥은 사름이 아니 울 수가 싯수켄(있겠읍니까). 이제 그 아기 생각허는 것이 이제 막 울어전 살지 못허켄.” 허난, 이제 빗(햇볕) 과랑과랑 나는 마당더래 춤(춤)을 탁 바쁘면서(빨으면서),

“에, 그건(그렇다면) 이 춤 뽀기(잡기) 전에 이승을 강 그 아기덜 방(보고) 오렌.”

허난, 시젠 놀앙오란 그 아기덜 져(져) 맥여 두고, 빨래 해취두고 허연 간 이제 저승에 들어가난 [시간 전이 잘 오랏젠] 허연, 이제 저승에 간 딱로 거기서 자당(자다가) 따시 메틀에(며칠에) 혼 번 [이승 강 오렌] 허민 이승 오곡. 자꾸 해가난 이제 웨할망이 보난,

“아고, 야인(이 아이는) 어멍 엇인 아기엔 홀 수 엇민. 무룩무룩 슬찌고 고왓젠.” 허난,

“우리 어멍 밤이민 오메.” 허난,

“아, 이제랑 어멍 오젠 날라(나에게) 라드렌(말해라).” 꺾곡.

그 아기 이제 경정(이력저력) 해가난 호꿈(조금) 오간(철이 들어) 이젠 걸음발 허곡 말도 허난,

“어멍 오민 날라 라드렌. 니네 어멍 엇어부런 보난 이번엔 오든 안 보내켜. 날라 르렌.”

허난, 이젠 어멍 오나네,

“아고, 어머니. 어머니. 난 저 똥 무룩완 똥누레 가젠.”

허난, 어멍은 아이 강 소도리(고자질) 해불카부텐(할까봐서),

“아고, 똥 무룩거드네 정지(부엌)에 싸라.” 허난,

“정지에 싸든 똥내(똥냄새) 안 남네까. 밥허레 가문 똥내 남네다.”

“상방에 싸라.” 허문

“상방에 앓앙 놀젠 허문 똥내 안 남네까?”

“구들(방)에 싸라.” 해도,

“구들에 똥 자젠 허문 똥내 안 남네까. 난 저 올라에 강 싸구덴.”

허난, 이젠 어멍이 르레 가카부텐 벌써 알아네. 춤술을 이젠,

“니 홀목에 즐라 메곡, 나 홀목에 즐라 메그네 똥 뉘똥 오렌.”

허연, 경 보내노난 아인 오꼳 할망칩의 드라간 이젠 정지에 간 춤술은 꺾끗 촛룩데레 오꼳 즐라 메두고 할망칩의 드라간(달려가서),

“우리 어멍 와서. 우리 어멍 와서.”

허난, 이젠 할망 놀아오난(달려와서),

“아이고, 설룬 아기야. 이번이랑 썩로 대명시겨 주마 가지 말라. 몰로 대명시겨주마 가지 말라.”

허여 가난, 이제 더디(늦게) 가 가난 저승에선 이제 채시가 또 돌레(데리러) 오랏거든. 돌레오난 이젠 글렌(가자고) 허여네. 해가난 할망은 안 보내켄 해가난,

“아고, 허건(그렇다면) 신체랑 촛지(차지) 허렌, 날랑 혼 빠가켄.”

[조사자 : 예, 혼만 양?]

아, 경헨 글로부터(거기서부터) 사름은 혼 빠가는 법을 오꼳 내와난 혼 뺨 오
꼳 가부난 신헨 덜랑이 구들에 죽언 내부런. 허용아가가 그쳐록(그처럼) 안해
시민 저승 왓닥갓닥 허컬. (김자생, 男)

호랑이 잡은 이야기

어린 아이가 신디이. 우리 두릴(어릴) 때 옛 말 들어난 말, 요새도 꼴암주마
는.

이제 호랭이가 마당에 오란 짝 무릎 꼴리고 었더진디이. 아인 그냥 호랭이
발로 그냥 모션 막 드러(계속해서) 울어도 느시(끝내) 소릴 그치질 못허연. 아
이가.

[사탕 주마] 해도 소리 안 그차, [사과 주마] 해도 소리 안 그차.

허난, 이 그 감이 꽃감이 이시나네,

“마, 요 꽃감”

허난, 아기가 소리가 딱 그치난 이젠 그 놈의 호랭이는 이제 췌막(외양간)에
간 뉘서. 췌막에 누난 췌도독은 땡기단(다니다) 보난 어름췌어 보난 털이영 북
삭헌게 그냥 좋은 거라. [예, 요놈 이제랑 요 우이(위에) 었더진다.]고.

푹 었더지난 그냥 이놈의 꽃감 부떠다고 와들와들랑 들러귀멍. 선비난에 짓
부리멍 가도 떨어지지 안허연. 떨어지민 죽을 걸로 아난 그자 딱 언주안앙 가
는디 큰 산중에 이제 큰 풍낭 소쿠리, 풍낭 좃갓디 간 영 부비어 가난 풍낭 확
안안 그 사름이 이젠 그 풍낭 소꿍더레(속으로) 기어 들어 부러서, 기어 들어부
난게, 그 호랑인 지베 집의 가난게 각시베영게,

“아, 당신 인물 내(사람뻘새) 난다고. 인물 내 나니 이제 곧 어디 간 털어 부
런디.” 허난,

“요 아무 속에 풍낭 어염(옆)에 오란 털어 져젠.”

허난, 이젠 그 숫(雄)호랭인 우으로(위로) 가네 딱 막아 앓고, 암호랭인 알로
(아래로) 그냥 톱으로 썬다(썰다). 싸가난 그냥 마주 앓이 난게(앓으니까) 불알
(낭심)은 다랑이 등것주게. 호랭이가. [웃음]

허리띠로 불줄기 확 무껴서. 딱 졸라맨 이젠 죽건 죽으렌. 둥기난 이젠,
“아이고, 꽃감 부떠다.”고.

막 외여가난(외치니깐) 이젠 각신(아내는) 그냥 툭 나뉘면 돌아부련(달아나 버리다).

훈참 동기난 느랏이 죽어. 죽으난 이젠 호랑이가 죽으난 나오란 털어추안(떨어뜨려서). 예, 거 나라 임금인가에 상타더라 허여. 옛날도. [웃음].

(김복, 女)

딸은 출가의외인

* 이 얘기가 있기 전 몇몇 다른 내용의 얘기를 했으나 내용이 확실하지 못여 실지 않았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다른 내용의 얘기임을 미리 밝혀 둔다.*

경허난게 옛날도 딸은 출가의외인(出稼外人)이라도 아방(친정아버지)도 ㄱ튼 날 훈 시에 죽고 씨(婢) 아방도 훈 날 훈 시에 죽으난 개광(開曠)은 아시날(전날) 간 아매도 개광을 흰 모양이라.

경헌 나두난 어느 동안 딸은 간 아방 물을 디 간 좋은 자리 봉간(찾아서) 개광을 허연 출흙 파다 두고 허연 막 다리고(다지고) 나두난 물 훈 허벅 전 가베 광광 비와 부러된 와 부러서. 비와 부러된 와부난, 행상(行喪)은 허영 간 보난 물이 둥둥 허엿주게.

경허난 아니 딸년은 그 씨아방 ㄱ튼 날에 ㄱ떠 묻게 돼난 행상해 놓고 허연, 이제 [아방 눈디 오랑 보켄]. 돌려 오난 이젠 거기선 [개광허지 마랑 시렌]. 해된 돌려 오란 보난 이젠 물이 둥당했주게. 이젠,

“아휴, 우리 아방 무사(왜) 물통에 묻젠 햄시니. 물통에 묻젠 햄시니.”

막 둥글멍(튀클며) 원망해가난 이제 그디(저기에) 산(墓)을 안 써서. 그 오라 방비가.

그디 안 쓰난.

[조사자 : 예, 친정아방 묻젠 헌디 양?]

응. 친정아방 묻젠 허는디. 딸이 대왕(大雁)터에 간 물을 두어 허벅 저단 비와 부러트주게.

“아, 우리 아방 물통에.”

누어 둥글멍 막 허여 가가난 이젠 다른 디레 메연 가부러트주게. 메연 가부난 예, 그제 진작 그 시간에 그디 ㄱ저단 물 퍼두곡허연 거기 묻으난, 딸은 잘돼

꼭 오라방은 망해볼꼭.

[조사자 : 예, 저 시아방을].

시아방을 가져단 묻었주제.

전디 거 옛날 꼴도 이녁(자기)만 잘 뒀젠 허연 잘못이라.

[청중 : 예, 몰상식한 년이여.]

이녁펜이가 잘 뒀어사 싱싱허는디, 아방이랑 망허꼭 이녁펜이랑 잘 뒀꼭.

(김복, 女)

도채비에 홀린 사람

도채비 말인디, 이것이 오래된 말이라. 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다정한 친구들과 살고 있는데, 하루는 저녁에 뉘 자고 있는데

“계십니까? 계십니까?” 허여.

“누구냐?” 허니까,

“나 이동네 사는 누구누굽니다.”

“뉘 허래 왔느냐?” 허니까,

“누구네 집의 도야지를 잡아 가지고 뉘추렴을 하고 있으니 나와서 같이 추렴도 하고 술도 먹고 눕시다” 허니,

“안가껴” 허니까,

“갑시다. 갑시다.” 하도 권해서 나왔어.

얼마 가지 못해서 뉘 잡는 데가 있을 텐디. 시간상으로 오래여.

“뉘왔수다.”

경허다 보니까 그사람 뉘를 쫓아가는 데, 길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길도 어둡고 날은 깜깜하고 이상하게 여겨,

“나는 안간다.” 허니,

“뉘 오랐수다.” 허며 유인하기 때문.

공포심이 있어 조금 정신을 차려 보니 이상한 내창[정지천]이라.

“도채비에 걸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이상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뽕조리 동산(돌바위)에 무의식중에 턱 올랐거든. 사람이 오를 수 없는데 도채비가 수를 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채비는 12시 이후. 1시, 2시, 3시가 돼가지고 닭이 울면 저절로 사라지는 법이라. 시간이 몇 시인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몇 시간 동안 걸어 왔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빨리 닭이나 울었으면.”

도채비가 하는 말이,

“닭이 울면 어찌?”

“사람이나 멍겼으면.”

“사람이 멍기면 어찌?”

“개 주구는 소리가 났으면.”

“개 주구는 소리가 나면 어찌?”하고 반박하다가. 나중에 닭이 울고 날이 새어서 정신을 차려서 잘 보니 뽕조리 동산에 앉아 있고, 몸은 가시자왈 돌 있는데 멍기다가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신도 없고, 옷도 일로절로 가시자왈에 걸려 찢어지고 없었거든,

집으로 왔는데 도채비에 홀려서 혼이 빠지고 넓이 나가 몇해 못살고 2, 3년 살다가 빠졌다.

도채비가 났다가 까진 장소에는 빗자락이나 개똥이 있다는 말이 있어, 별다른 말 아니여.

주) 정지천 : 귀덕과 금성을 경계하는 건조천
뽕조리 동산 : 귀덕과 금성사이 돌로된 언덕

효부 이야기

귀덕리 경주 이씨가 있는데, 한경면 판포리에 가면 진(秦)씨가 많이 살고 있어. 그 집의 딸이 경주 이씨 집에 시집을 왔어. 지금으로부터 200년전 이야기라.

귀덕 시아버지가 돌아가서 좋은 산자리를 골라서 안장을 하려고 임시 토롱을 허고 있었어. 정시(地官)을 초청해서 산을 보러 다니던 중 판포리 친정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니 죽기 전에 와서 놀다가라 하여 판포리에 갔거든.

“아버지 그동안 병세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귀덕리에 시집가서 자주 아

버지 병환을 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말씀 허시기를,

“딸랑 저래 물러가고, 아들만 이 자리에 오라, 내가 할 말이 있다.” 하니, 딸은 “예 경허우깁.” 하며 물러나면서 생각허기를 “딸도 자식인데 아들만 불러서 비밀 이야기를 하려는고 못쓰겠다 어디가서 아버지 허는 말을 꼭 들어야 하겠다.” 허고 창문둥 밖에서 부자간의 대화를 엿들어 보았어. 아버지가 허는 말이,

“귀덕2리 소못연대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 거기 가서 물어 달라. 만약에 거기 묻지 못허면 판포리 즈꿋디(근처에) 물어 달라.” 애원하고 며칠후 죽었어.

딸은 시아버지가 묻지 못하여 있고,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시니 또 소못연대에 물어 달라고 했으니, 딸이 조금 나쁜 먹음을 먹은거지. 그밤에 소못연대에 와서 친정아버지 물을 곳을 조사해 보니 썩 좋거든. 좋으니까, 딸이 마음을 달리 먹고 친정아버지를 묻지 말고 시아버지를 묻겠다 마음을 가졌어.

옛날에는 안장하기 전날 개광(開曠)을 파고 즈꿋디 천막을 치고 감시를 허는 습관이 있었던 모양이라. 혼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천막속에 봉덕불을 키고 개광은 하고 지키고 있는데, 개광을 허물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뉘자고 있는거라. 밤 열두시쯤 된 때 딸이 물허벅을 이고 와서 오백매다 거리에 있는 물을 밤새껏 개광 자리에 질어다 갖다 부어서 개광자리에는 물이 가득허게 고였어. 내일이런 현 날은 판포에서 행상을 메고 와서 원자리에 놓고 보니 개광 자리에 물이 고여 있어.

“오라버님, 오라버님 아무리 혼들 아버지를 물 고인 이러한 땅에 묻겠읍니까?”

당추 안된다고 응상조압하는 거라.

“아무렴은 물통에다 아버지를 묻겠읍니까?”

상주는 아버지 유언에 이 자리가 좋다고 했는디 이상도 허다. 허고, 할 수 없이 상주가,

“행상을 판포리에 뜨시오.” 허니

딸은 행상을 판포리에 묻은 즉시 시아버지를 그날에 귀덕에 묻었다.

그후 귀덕과 판포는 웬수가 되고 이녀아방 물을 걸 시아방을 묻은 이집에서는 잘 되어서 다 발복(發福)하고 과거급제한 후, 귀덕 이씨집은 판포에 가서

사정하고 조상이 잘못했다고 빌었다는 거룩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귀덕 이 씨집이나 판포 진씨집에서도 전설로 삼아 내려오며 말하고 있다.

(이춘식, 男 · 56)

문고리 귀신 이보

옛날 옛적에 상당히 부량한 난봉꾼이 있어서 일도 하지 않고 돌아만 다녀. 옛날 궁궐에서 방을 하나 붙였는데 어느 마을에 원님을 가른 무조건 시켜 준다고 허나 거기 갈 사람이 없어. 거기 간 날 즈녁에 사람이 죽는다 말이여. 아무라도 지원해서 가면 시켜준다 허니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내가 가본다고. 가다가 주막집에 떡 들어가서 씹을 해 가지고 한밤중께 되니까, 그디 처녀가 있는데, 처녀가 죽다가 살아나고 해서, 단 하루 즈녁만 살아서 갈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로 저 처녀가 아프는가 이유를 알려 재차 하루 즈녁을 더 살아 갈려고 그 사람이 복장을 먹었어. 그래서 한밤중께 되니 인기척 소리가 나면서,

“이보야 거기 있나? 없나?”

“왜 나 여기 있다.”

“내가 들어갈까 말까?” 허니,

“들어오든 말든 몸대롭 해라.”

그것 이상한 소리 나온다고 이틀 즈녁만 살고 나오려고 하다가, 예, 하루 즈녁만 더 살고 본다고, 신기허니까, 하루 즈녁을 더 살아서 혼 열 두시 되니 그 사람이 떡 바꿨디 와서 귀신으로 가장해서 문답을 해봤어.

“이보야 너 어디있나?” 하고 물어 봤어.

“나 이제도록 멍겨도 너 알지 못허게 처래 멍겼다 말이여. 내 문고리에 신을 의탁해 가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아무 마을에 가면 사람이 죽는디 그건 어떤 이유냐?” 이렇게 허니까,

“그것도 지금까지 모르고 멍겼느냐. 여기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큰나무 썩어 빠진 디가 있는데 늙은 여호(여우)가 있어서 그것만 잡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잡을 수가 있냐?” 허니 “그것은 가다가 지름을 사서 탁나모 파진 디 그걸 막아 가지고 지름 비와서 불을 부찌라”고. “제가 뭐 여우가

야모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죽겠지.” “아, 그러냐.”고, 이보엔 현 문걸쇠를 모질려 가지고 보갯디(주머니에) 집어넣고 멍기지 곤란현 땀 “이보, 거기 있냐?” 허면 잘 말해 줘.

가다가 보니 풍낭(뽕나무)에 구멍이 뚫어진 디가 있거든, 드립다 막아 가지고 불을 붙여도 여우가 죽는 것을 몰라, 죽었지 해서 거기에 원님을 살려 가니 심바람(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서 내일 가보면 이 사람이 죽어 있겠지 하고 가보니 팬도롱 살아 있거든,

그 사람은 행사(항시) 무신일 이시몬

“이보야, 너 거기 있냐?”

“나 여기 있다.” 그거허고 이논하는 거라. 소문이 나버린거라. 이 사람은 뭐를 해도 말 혼 꼭지면 귀신이 물러 가고 병이 나도 고쳐주니까 병을 잘 본다고 궁궐에 유명하게 되어 버렸어.

호루는 이정승 대감 마누라가 피부병으로 몸이 다 헐어서 약이야 먹음대로 있겠지만 어떠한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모셔다 병을 보는 거라.

“이보야, 너 거기 있냐?”

“있다.”

보갯두(주머니)를 영 열어서,

“이러한 집의 마누라가 죽게 되었다. 이러하니 저걸 살리지 못하면 내가 죽을테니.”

“그것 쉽다.”

그때 잡으려고 했던 여희놈이 죽지 않고 도망가기를 이정승 대감집에 도망와 가지고 대왓속(竹林)에서 요동을 부러가니까 아팜도 허고 허는 거라.

“그걸 어떻게 해서 잡겠는가?” 허니,

“그 대왓을 포장, 광목을 씌워서 불을 부쩌라. 지가 둘을 더 어시몬 죽을 것이라.”

대왓 더꿀 만한 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어. 슬슬 돌아다니다가 일기가 온화하고 바람도 안분데 대왓을 불을 부쩌난 얼마나 잘 부뜰거라. 소리 나멍. 대왓에 불은 붙었는데, 여희는 죽고 사는 처래도 모르고 병은 오끗(그만) 좋았다 말이어.

임금님도 그런 기술이 있으면 어디 가지 말고 나라 의소노릇을 허라고 해도 안허겠다고 하다가 임금말 거역하며는 안된다 말이여.

“그러면 허겠습니까.”

저기 의소로 있는데 한번은 중국 천자(天子)의 마누라가 배가 불러 까딱 오몽도(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라. 조선에 명의가 있다 허니 보내라 허여. 그 사람이 뽕혀서 간다 말이여. 이번에 까딱 잘못하다간 죽을 지경이라. 이보신디 물어보는 거라.

“이보야, 천자의 마누라가 배가 불러서 있으니, 내가 이걸 고치지 못하면 나는 죽게된다. 어떡하느냐?”

이보가,

“침, 명탕구리 헐 수 없다. 그걸 못 허느냐? 이번에 가다가 압록강 너머 만주 땅 넘어갈 때는 춤매(작고 날쌔 매)를 가지고 사냥하는 사람이 거기에 나타날 거여. 날개로 치면 워낙 빠르거든. 꿩이 날을 때 한번치면 모가지가 딱 떨어져 나가. 팔라고 해도 잘 안 풀거라. 안풀면 돈을 많이 주면 그 매를 살 수가 있어서 그거 쓰게 되면 지가 보증을 헐테니, 한번 해봐라.”

이젠 중국으로 들어가서 만주지방을 들어갈 때 손뿌리에 앉혀 가지고 사냥하는 사람이 있어. 풀라고 해도 안 쫓다고 하니 돈을 워낙 많이 주고 사 가지고. 돈에 춤(침) 바끄는 사람은 없어.

천자신디 갔어.

“너가 명의냐?” 허니

“명의는 못갈망정 좀 험니다.” 허니

이젠 이리이리해서 부인이 배가 불러서 죽을 지경인데 저 병만 구완허믄 뭐든지 소원대로 해주마. 중국서 산다고 하면 큰 벼슬을 주어 살도록 하고 조선에 들어가려고 허면 벼슬을 시키겠다고 하였다.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병 보게 될 때는 내가 병을 볼 날짜라 허면 사방 문을 열어 자쳐라. 그러면 내가 진찰하러 올라 가겠다.”

그럭저럭 일기를 보다가 바람도 고요한 일기 좋은 날,

“내가 보겠다. 환자를 어느 방에 모셔봐라.”

혼자신디 가까이 가지 않으나 배가 이만큼[한아름]한 사람이 의자에 올라 떡 있으니 매를 도포 소매 속에 넣고 다니며 먹을 것을 잘 주며,

천자의 마누라가 나오니 매를 내쳐서. 그만 매가 날아가서 천자의 마누라 배를 갈라 버려서(갈라 버렸어). 갈라부니 그 갱쟁하던 여우가 그 속에서 지랄헌 거라. 여우가 사람으로 변장해 가지고 그렇게 허니까. 죽어 나사나(죽고 보니까) 여우니까 이런 명의가 세상에 없다. 조선에 가지 말고 여겨서 살아 천상군의 만호를 봉하고 여기서 살라고 허나 그 사람은 조선에 가겠다고 허나 걱정이야. 조선으로 돌아가도 병을 보라고 할거고 이보가 끝까지 붙어서 해주지 않을 거. 모가지는 언젠가 쏠릴거.

슬쩍 오다가 아무도 모르게 이보신디만 말했지.

“이보야, 너 거기 있나? 나는 너 덕분에 이름을 떨치고 어떻게 해서 너가 떨어진다고 허면 나는 죽은 목심이라.”

“그건 내가 떨어지게 되면 그리 안허도록이 해놓고 가겠다.”

중국서 오다가 한곳에 가니, “이제는 내고향에 왔으니 떨어지겠다. 이대로 가다 눈에 무신일이 있을거라”고.

“병 보는 눈에 무신일이 있거든. 여기가 고향이니까 떨어지겠다” 허니, 그 후엔 “이보야” 불러도 아뭇소릴 안 허여.

“아이고, 어땡허코?” 걸다가 발을 딱 쳐서 넘어져서 조썩헌(표죽한) 낭코지로 눈 흘쩍 째 쑤셔부러서. 눈 병신이라. 이리 나왔어.

무신것을 봐 달라고 허면 “아이고 난 병보는 눈 흘쩍이 영(이렇게)되니까, 난 모른다”고해서 못 보게되니 잘 살았다고.

이보는 중국땅에서 배를 지어 다니다가 파도에 밀려 파손하였는데 그 혼령이 못에 의탁해서 조선에 떠밀려나서 그것을 봉근(주운) 사람이 문고리를 만들어서 달았다 으랏다 허게 되었다.

(홍경표, 男 · 73)

信 仰

指導教授：玄 容 駿

指導補助：高 光 敏

班 員：李 完 鍾 (4)

梁 永 子 (3)

張 銀 心 (3)

朴 相 勇 (3)

林 宣 希 (2)

吳 姬 淑 (2)

姜 忠 旻 (2)

趙 恩 影 (1)

目 次

I. 概 觀 III. 部落信仰

II. 公認宗教 IV. 個人信仰

I. 概 觀

서회선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정자천을 경계로 涯月邑과 접해 있는 翰林邑의 제일 동쪽에 위치한 歸德里에 이른다.

산이 하나도 없고 큰 산맥도 없으며 해안가에서 산촌까지 비교적 緩晚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이 마을은 8개동을 거느리고 있는 마치 南北으로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큰 마을이다. 귀덕리는 원래 翰林邑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는데 사동·중동·하동·성로동·신서동은 1리로, 장흥동·장라동은 2리로, 신흥동은 신흥리로 행정구역이 整備되었다.

歸德里의 古村名은 石淺村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앞바다에 있는 熔岩으로 된 큰여·작은여를 石村島라 부른데서 由來한다고 하며 옛부터 선비가 많았다고 傳한다. 歸德里에서는 효행과 貞節을 기리는 비들을 도처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 地域의 信仰은 愛鄉之心으로 행해지던 部落祭인 酬祭가, 새마을운동이나 미신打破 等의 政策에 의해 없어지게 되자 원래 巫式祭가 지내지던 할망당에서 部落祭를 지내게 되었다. 公認宗教로는 대부분이 佛敎를 믿고 基督教人도 있으며 天主教人은 6명에 불과하며, 아직도 토속민간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I. 公認宗教

歸德里의 公認宗教는 佛敎, 基督教, 天主教가 있는데 대부분이 佛敎를 믿고 있고, 절은 1리와 2리, 교회는 2리에 있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한림포교당까지 다니며 信徒도 극히 적은 6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있고 토속적 민간신앙을 믿고 있어서 종교의 전파가 힘든 실정이다.

〈佛 敎〉

(1) 귀덕1리

- ① 名稱; 귀덕포교당
- ② 宗派; 조계종 일불선종회
- ③ 위치;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 955번지.

④ 沿革 및 現況; 불교를 포교하기 위하여 1968年 7月 18日 김춘향(미타신)보살이 대지 280평 위에 (구)법당, 22명과 객사 31명을 보안하여 포교당을 創建했다. 이를 이어 장연종스님이 現 법당을 건립하고 구법당과 객사1동을 요사체로 쓰게 되었다. 장연종스님이 지부장으로 그 스님의 상좌승들이 관음사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당內의 불상은 석가상문수보살상, 관세음보살상을 비롯하여 신장탱화, 지장탱화, 독성탱화, 한신탱화, 칠성탱화, 용왕탱화, 고현탱화가 걸려 있다.(역대스님; 1. 장연종, 2. 강자문, 3. 황희철, 4. 문철성, 5. 이규정(現))

⑤ 信徒; 귀덕1리를 中心으로 귀덕2리, 금성, 애월, 제주시 거주인 몇명을 포함하여 7·8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중년층 부녀자들이다.

⑥ 運營經費; 특별히 구성된 신도회가 없어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며 현 이 규정스님(42세) 혼자 힘으로 祭日날 불공행사(사팔행사, 칠월칠석, 칠월백중, 10월제, 정월보름, 동지)때 바치는 불사(사주)로 이뤄지는 형편이다.

⑦ 事業; 現스님은 설법에 힘쓰면서 범종(종각)을 설치하려 하고 있으며 꾸준히 地域布教에 힘쓰고 있고, 교도소 위문, 보육원 위문도 하고 있다.

(2) 귀덕2리

① 名稱; 海雲寺

② 宗派; 太古宗

③ 위치; 귀덕2리 해안가 3895번지

④ 設立 및 現況; 현재 제주시 광명사 주지스님으로 있는 守明 金京歡스님이 처음 바닷가 초가의 10평 남짓한 곳에서 부처님을 모신 것이 계기가 되어 사찰로서 자리를 정립하게 되었다. 원래 제주시 관음사 포교소로 애월읍 어도리에 소재했었는데 4·3사건으로 寺刹이 疎開되자 1948年 해안마을로 移安하게 되었다고 한다. 1962년에 법당을 改築했는데 불상은 석가상, 미타상, 관음상, 지장상의 4개의 불상을 奉安하고 신장탱화, 칠성탱화, 어래탱화가 걸려있고 큰북을 비롯한 佛具가 있다.

(역대스님; 김수명(창건주), 김경환, 김수옥(비구니스님), 김광삼스님, 고덕수스님)

⑤ 經費 및 運營; 信徒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얻어 자체조달한다.

⑥ 信徒; 地理的 위치로 인해 농사와 어업에 종사하는 신도가 많다. 약 150세대의 신도가 있는데 연령층으로 보면 미혼여성이 거의 없어서 10·20대는 적고 30대에서 80세까지의 여자신도가 골고루 分布하고 있는데 귀덕1리, 2리 거주자가 대부분이고 신흥동은 없다. 외지로 나간 이들은 후세대까지도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緣故地를 찾고 있으며 현재 제주시, 서귀포, 부산, 서울까지도 신도가 분포하고 있다.

⑦ 規模; 대지는 30평인데 법당은 요사채 2채(30평)와 대웅전 1채를 보유하고 있다. 법당전평은 2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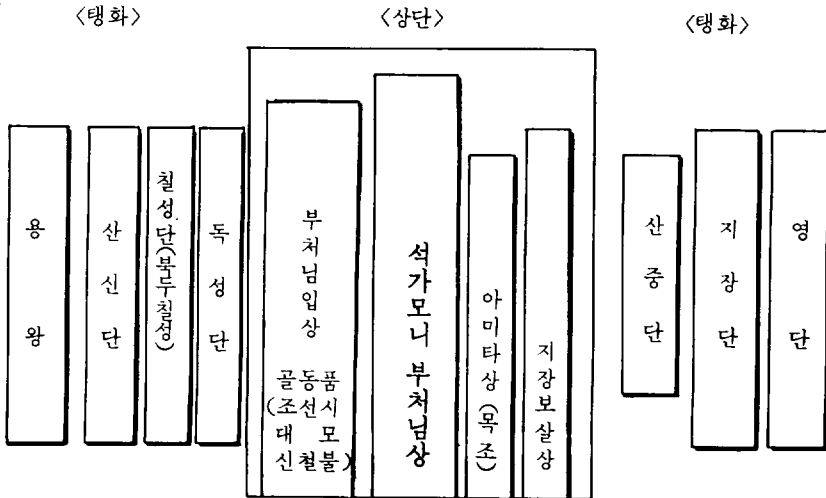
⑧ 절터의 由來; 海雲寺는 역사적 고증은 없지만 口傳에 의하면 이 地는

高麗時代의 거대한 寺刹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 形象이 가깝이(개구리)가 앉은 형상을 하고 있어서 ‘가깝이터’ 일명 ‘개구리터’ 라고 한다. 절터 앞에는 湧泉인 “부처물”이라는 生水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목욕하면 만병통치한다는 傳說이 있어서 백중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한다. 옛날에는 사찰기와도 보였으나 지금은 마멸되어 찾아볼 수 없다. 이 절터는 풍수지리설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한다.

⑨ 布教活動; 현재 대표는 33세의 高德洙스님으로 법명이 釋性律이다. 스님은 자체내실을 기하면서 대외적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어서 在所者에게 정기법회를 하고 불교신자가 아닌 지역기관장을 초빙하기도 하여 학생법회를 통한 교육적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⑩ 法堂內部; 다음 그림 참조.

<그림1> 法堂內部



<基督敎>

- ① 名稱; 대한예수교장로회 귀덕교회
- ② 宗派; 대한예수교장로회

- ③ 教派; 장로교 통합측
- ④ 位置;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2리 3740-2번지
- ⑤ 沿革; 1951年 5月 6日 한림교회당에서 나신동 기도처로 분립하여 설립되었다. 동년 5月 9日 문을생, 고호림, 최용철, 안세민, 김광전, 김익순, 홍창외, 홍승규 등이 귀덕리 3749번지 문을생집사택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여 매주 삼일저녁마다 모였다. 1957년 3월 9일 귀덕리 3740번지를 교회대지로 매입하고 4월 21일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59년 10월 7일 제주노회 제35회 정기총회에서 귀덕교회로 분립 허락되었다. 현재 강공하 전도사가 사무하고 있는데 신자는 50여명에 달한다.

Ⅲ. 部落信仰

1) 포제(醮祭)

醮祭는 愛鄉之心으로 행해졌는데 3·40年前부터는 祭의 지속성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해방후부터는 새마을운동과 미신타파 등의 국가정책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포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줄 제보자를 찾을 수가 없었으나 다행히도 한 제보자의 기억을 통해 그나마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제보자: 양우종, 男·68세)

- ① 名稱; 醮祭, 또는 마을제
- ② 祭神; 天神
- ③ 祭日; 상정월에 좋은날을 擇日한다.
- ④ 祭場; 祭場은 처음 연대동산에서 행해지다가 「대왕이」로 옮겨졌다. 대왕이밭은 그 주변지역을 대웅이, 대웅밭 등으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웅이'인 듯하다. 圖式에는 대웅혈이 있다고 하며 대웅이 못은 現存하고 있다. 제보자의 집터를 대웅이라고 불렀었다고도 한다.
- ⑤ 祭儀管理; 祭儀는 鄉會에서 결정을 하는데 회소집은 警民長이나, 鄉長(리장, 구장)이 소집한다. 이 향회에서 祭官이 선출되며 경비도 결정된다.

⑥ 祭官; 제관은 8개동에서 고루 선출되고 祭日 3·4日전에 합숙한다. 다른 마을과 같이 12계관이 行祭하게 되며 節次도 다른 마을처럼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行한다.

祭官의 종류로는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執禮, 大祝, 謁者, 贊者, 奉爐, 奉香, 奠爵, 司樽, 典祀官이 있다.

⑦ 入祭; 3일전부터 대왕이에서 장막을 치고 취사를 해결하며 謹身齊戒한다. 부인인 경우는 식사제공과 祭物을 차리는 경우 이외는 出入이 禁止된다.

⑧ 禁忌; 뱀이나 개고기 등은 먹지 않으며 초상이 나거나 누가 해산하게 되면 祭는 연기된다.

⑨ 祭服; 청의도복을 입고 儒巾을 써서 整衣冠한다. 그리고 제복보관은 개인이 한다.

⑩ 祭物; 확실한 것은 알 수 없고 메는 五穀에 犧牲, 五果, 脯肉, 豬肉 등이 올려진다.

⑪ 豫兆; 예조는 그리 중시하지 않는다.

⑫ 飲福; 祭가 끝나면 고기를 삶아 반을 나누어 먹는다.

2) 堂祭(제보자: 양우종, 男, 68)

堂祭는 원래 심방에 의해 巫俗으로 행해졌으나 해방후 部落信仰인 酬祭가 행해지지 않게 되자 儒式部落祭로 변모되어 그 기능을 하고 있다. 당제는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제를 지내게 되는데 특히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한다. 현재 귀덕리에는 堂祭가 끝난후 심방이 巫式으로 비는 儒巫혼합의 특이한 형태로 변모되어 行祭한다.

① 名稱; 할망당

② 所在地; 귀덕리 '돈지'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③ 祭神; 바다신인 요왕할머니(선왕)

④ 祭日; 正月 첫 未日로 하는데 부락에 초상이 나거나 불길한 일이 있을 때는 다음 未日로 한다.

⑤ 祭官; 이장 또는 船主로서 나이 많은 분이나 그 告祀에 대해 잘 아는 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執事2人, 鄉老1인으로 구성한다.

⑥ 經費 및 運營; 옛날에는 家戶數으로 준비했는데 봄에는 결보리 5되정도, 가을에는 조를 내었다. 그러면 하인(보통 심방)이 제물을 차렸다. 지금은 필요한 만큼 船主들이 돈을 내어서 차리며 선주들은 개인적으로도 제물을 준비한다. 이 때 경비는 이장과 선주들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⑦ 祭物; 정확한 규정은 없고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메, 과일, 고기(회생, 해어), 폐백 등을 올리며 祭酒는 옛날에는 淸酒를 썼으나 지금은 소주나 甘酒를 쓰며 폐백은 광목, 베, 무명, 명주 등에서 1필을 한다. 각 船主들은 개인적으로도 祭物을 따로 준비한다.

⑧ 祭服; 정결하고 깨끗한 한복, 옛날에는 관이나 유건을 쓰고 띠를 둘렀으나 지금은 堂祭에는 하지 않는다.

⑨ 參席範圍; 1리, 2리 사람들이 참석하고 신흥동은 어촌이 아니므로 참석하지 않는다.

⑩ 入祭; 酬祭와는 달리 그리 엄격하지는 않으며 준비하는 집에서 하루 정도 합숙하면서 밤을 지낸다.

⑪ 行祭; 3獻官이 儒敎式 祭法으로 行祭하고 나면 이어서 심방이 요령 등을 들고 나와서 巫俗式으로 비념을 하고 무사고를 빌어준다. 심방은 祭에 참석하지 않는다.

⑫ 禁忌; 정성이나 금기가 그리 엄격하지 않으나 개고기·말고기를 禁하며 喪家를 피한다.

⑬ 豫兆; 제가 끝날무렵 심방이 쌀점으로 삼판점을 쳐서 吉凶을 예언한다.

⑭ 飲福; 준비한 집에서 고기를 삶고 썰어서 반을 나누어 먹는다.

⑮ 개인별비념; 堂祭가 儒式 部落祭로 行祭되는 반면 집안에 굶은일이 있거나, 가족이 아플 경우 혹은 그 액을 막기 위해 개인적으로 할망당에 심방을 데려다가 비는 경우가 있다.

조사팀은 직접 그 비념을 듣고자 메를 하고 해어 군 것, 과일, 빵, 향, 쌀 등의 제물상을 차리고 심방으로 하여금 비념을 하도록 청했다. 할망당에서 비념

을 하는 동안 조사팀은 녹음을 하고 사진촬영, 메모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 개인별비념은 다음과 같다.

〈할망당 비념〉

(송씨할망에 2拜, ¹⁾결맹바깥에 2拜 바다를 향해 2拜를 한 후 자리에 돌아와 앉아서 삼관을 꺼내놓고 주문을 외기 시작)

윤유월달 초이들은 근당하곡 전라남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송씨 할마님 낳는날은 생산초지 죽는날은 물고기 ²⁾초지입네다.

시·읍등에서 잠시 놀래오랏단 할마님 우망적선 오랏쑤다. 적선하여 근 창고ㄹ둑 모두 들여놓젠 해연 오랏수다 성은 고씨고, 현씨고, 이씨 외다. 할마님아. 관승 ³⁾에도 빨리게 맏서 입승 ⁴⁾에도 빨리게 맏서. 우리 여핏집 ⁵⁾이나 농사는 집이나 우리나라 곳뽕손 놈의나라 상한손 ⁶⁾들게 말아줍서.

아, 할마님 먹을년등 시내읍서. 입을연등 시내읍서. 대천 한간 질날 일 ⁷⁾을 나게 맏서. 이거뽕서. 어느건 공이 아니뽕네까. 어느건 지성 아니뽕네까, 저승돈은 화폐지전 이승돈은 보급만량 ⁸⁾천금만량 영 험네다. 할마님아.

맹장수 시겨줍서. ⁹⁾복장수 시겨줍서. 할마님아. 오닐은 우망적선 해

-
- 1) 입구: 결맹에는 雜神이 있다 하여 절을 한다.
 - 2) 物故: ① 名士가 죽음 ② 죄 지은 사람을 죽임
 - 3) 官囚으로 경찰서 등을 말함
 - 4) 관승과의 효과
 - 5) 옆집
 - 6) 독한병
 - 7) 초상이 나면 집 안팎 구별없이 왔다 갔다 신발을 신고 다니므로 더러워지는 현상
 - 8) 돈 놀리는 것
 - 9) 命을 길게 하여 오래 살게 해 달라는 뜻

엿수다. 오늘은 공겨먹영 목걸리꼭, 애걸리꼭, 신걸리는 법이웨다.

조상님은 신을풀민 호락과락 허는 뱀(법). 생인은 본을 풀민 칼선다리
놓는 법이웨다. 할마님아. 이 조손들 땡기는디 일년열두덜 무스태평 시
겨줍서. 발도츄게(차게) 맵서. 손도 츄게 맵서. 먹올연들 신해섭서. 입을
연들 신해섭서. 열두가지 추원반상¹⁰⁾ 즐러오랏수다. 할마님아.

모든걸 다 도막아줍서

스해(四海) 안은 열두나라 스해 밖은 열시나라. 신도봉향 상감상님 정
합네다. 송씨할마님아.

축일염날¹¹⁾ 험네다마는 오넬은 이 조손덜 앞질이 굵허영 영허염십네
다. 시에 입중이어디서 오라근 그냥 갈순 없으시영 허는 길이 되여십네
다. 명도명감 삼시왕(?)초소, 이승초소, 강림도소, 저승초소 고향네다.
차에 곶앙 죽어가던초소 물에염사하던, 초소 낭에 절영허던 초소, 어제 그
지계¹²⁾ 바쁜초소, 오넬넬¹³⁾ 행의 바쁜 삼시왕 초소덜 고향네다.

어떤 조상 해마다 연당을립네다. 외아덜 조상님들도 일혼오넬 도명감
천지천왕 언어당 살려줍서. 모든 조상에서 굶은액면 막아줍서 영험네다
조상님아. 어허 이디오랑 살아져도 아니땡기는 사름은 아니 땡기는디.
꿈에 선몽헐¹⁴⁾ 일 막아줍서. 남가일몽헐 일 막아줍서. 조상님아.

이절 저절 막아줍서 빙네다. 올 금년 여름삼설 막아줍서. ㄱ을삼설
막아줍서. 저을삼설 막아줍서 영험네다. 조상님들 굶은 일행이라도 모
든 것 다 도막아줍서. 허여허.

(십방; 저잔 가그네 저되 뷘아덜 또 다시 뷘아웁서)

(조사자; 아 잔 저되강 뷘아덜 마쑤?)

[잔에 낫던 술을 께에 부은다]

다 거느령 있습니다. 올 금년 대수대동 시켜줍서. 백수황령 막아줍서.
조상에서 뎡¹⁵⁾ 막아줍서. 아자도(안아도) 천리바램네다. 사아도멀리

10) 음식을 잘 차린 것

11) 염소날

12) 그저께

13) 오늘·내일

14) 現夢

15) 모두

랩네다. 에하, 축일염날 한달육장¹⁶⁾입네다. 조상님비들 조손들 땡기는
디 발복되게¹⁷⁾ 시겨줍서. 열에가도 도명막읍서. 스물에 가도 도명 막아
줍서. 천두도액 막아줍서. 액수 액면을 모두 다 신 꼴리멍 도막읍서 영
협네다. 천신을 두고 만신듭네다. 만신두고 동으로 오는액 서으로 막아
줍서. 서으로 오는 액이랑 동으로 막아줍서. 할마님아. 천수도액 막아
줍서. 두루 막아줍서. 맹인장수 시겨줍서. 복장수 시겨줍서.

(심방; 자, 광¹⁸⁾ 가정 오라서)

음. 영협네다.

(심방; 광넬 어서, 저 소지 읍서)

[입구쪽에서 배 밑에 깔았던 소지를 사른다]

이영 허여집네다. 천두도액 얻어당 보급만냥 흥협네다. 천금만냥 올
립네다 高氏로 몇 살이고?

(조사자; 고씨로 서른 여섯마썸)

서른요섯살, 현씨로 몇이고?

(조사자; 현씨로 쉰 넷마썸)

현씨로 쉰넷, 다시 李氏는?

(조사자; 李氏 확 7아불라게/스물요섯마썸)

이씨로 스물요섯입네다. 이 소지 올린대로 멍(兪)줍서. 복줍서. 억만
석으로 대령홉네다. 수만석으로 대령홉네다. 수만석으로 대령홉서.

[중얼거리며 삼판을 꺼내 점괘를 본다.]

올해 돈 하영 버슬쿠다. 고씨어른.

(조사자; 아이고 고맙수다)

[쌀을 건네주자 받아 먹는다]

새해 큰 밧을 사나 집을 사나 큰 우명날 일 나쿠다.

[참석자들 모두의 점괘를 봐준다]

(심방; 년 냇고)

(조사자; 나마썸. 스물 둘 마씨)

16) 한 달에 오일장이 여섯 번 있는 것을 말함

17) 發福: 복이 되게

18) 성냥

(심방:성은 뒹고)

(조사자: 양씨우다. 할머니 난 어멍허쿠과)

(심방: 는 새해 나문 시집가켜)

[일동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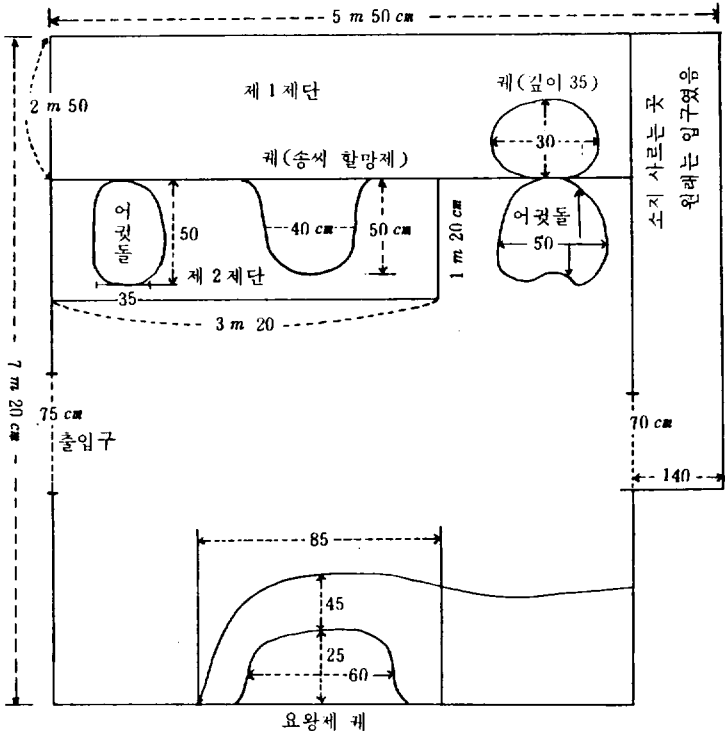
할마님아 문 막아줍서. 창고고득 들어 갑네다. 할마님아.

[퀘에다 밥 3술을 던지고 빵, 과일, 고기를 빼어 퀘에다 넣은 다음 밥, 과일, 빵, 고기를 넣고 술을 부어 잡식을 하고 그것을 요왕퀘와 결맹이 바깥쪽, 원래의 결맹이(지금은 소지 사르는 쪽)에 캐우리고 나서 마지막으 제1제단 위에 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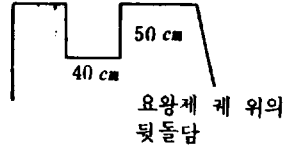
[음복한다]

⑩ 할망당 도식

〈그림〉 할망당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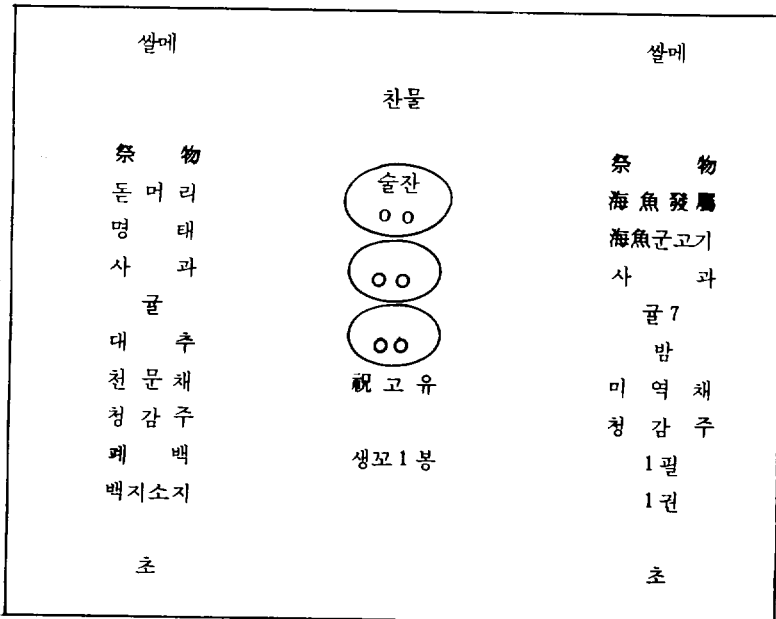
- 담 높이 : 1 m 35 cm
- 제 1 계단 높이 : 80 cm
- 제 2 계단 높이 : 30 cm
- 송씨할망 케 깊이 : 30 cm
- 요왕제 케 깊이 : 20 cm



3) 祈雨祭 (제보자: 홍태권, 男, 78세)

祈雨祭는 가뭄이 들 때 擇日하여 天神에게 祭를 지내면서 비가 오기를 비는 것으로 이 마을에서는 酬祭와 同一한 方法인 儒式部落祭를 지내게 된다. 祭場은 '대왕이'이며 祭物이나 제복 등도 포제와 같다.

<그림3> 陳設圖



IV. 個人信仰(가정신앙)

1) 土神祭

(제보자; 李春植, 男, 59, 귀덕1리)

土神祭에는 儒式, 巫式 둘 다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儒敎式 祭法에 의해 2년에 한번 행한다고 한다. 토신제는 성격에 따라 葬土神祭, 家新築土神祭, 平安土神祭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심방을 불러서 평안무사를 비는 平安土神祭의 경우는 '코시'라고도 한다. 그런데 儒式의 경우는 '코시'라 부르지 않는다. 이들은 성격에 따라서 祝文의 내용도 달라진다. 平安土神祭의 경우 祝文은 3회 계속해서 읽는다.

- ① 祭神; 土地之神位(前)
- ② 祭日; 집의 大主와 아이들의 생갑(생기)을 맞추어서 택일한다.
- ③ 祭場; 집 안에서는 얹고 마당이나 집 뒤의 정결한 장소를 택한다.
(天神이므로 서각터진방(공방)으로 돌려서 陳設한다)
화장실이나 퇴비장과 먼 정결하고 조용한 곳에서 한다.
- ④ 祭官; 집안의 나이 많고 유식한 남자 1명이 제관이 된다.
- ⑤ 祭服; 儒巾을 쓰고 한복 입은 위에 다시 도복을 입는다.
- ⑥ 祭物; 쌀메2器, 조메2器, 과일五果, 돼지머리, 해어, 골감주, 폐백은 무명이나 광목, 시령목1필, 백지.
- ⑦ 禁忌; 여자들은 出入을 금한다.

가) 葬土神祭

사람이 죽어서 안장할 때 土神에게 申告하는 祭이다. 장사를 지내기 전 시간을 택하여 葬地에서 지낸다. 安葬時 제관이 祝을 고할 때 평우는 소리, 말우는 소리가 나면 吉하다고 한다.

〈祝文〉

土地之神 命爲訓長(處士, 學生) ㉞ ㉟ ㊱(여자인 경우 宜人洪氏 등)
營建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醴齊 牲(魚)幣祇薦 于神 尚饗

나) 家新築 土神祭

新築을 申告하는 것으로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子正을 기해서 행하고, 싸움을
않는다거나 나쁜 것을 보지 않으며 장사 난 데나 불길한 장소는 삼가한다. 집
안의 모든 식구가 정성해야 하며 약 1주간은 몸단장을 해야 한다.

〈家新築 土神祭 祝文〉

土地之神(茲以) 宅主 ㉞ ㉟ ㊱ 之陽宅營建家舍(宅營建茲地, 茲地家舍, 地
營建家舍)

神其保佑 永亨碩福 如山之固 如石之確
億萬斯年 棟宇如昨 伏願 上樑之後
半祥畢至 萬福咸臻 謹以醴齊 粢盛(清酌脯醢) 幣脯
庶品祇薦 于神尚饗(祇薦于神 尚饗)

다) 平安土神祭

일년 열두달 집안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祈願하는 祭이다. 正月에 택일하
여 지내는데 집안에 不淨한 일이 있을 때는 재택일한다.

〈家土神 祝文〉

維歲次 某年 某月 干支 1)○○○ 敢昭告于
土地之神 宅主(洵) ㉞ ㉟ 爰居 爰處

莫非神效 衣土食之 莫非神效 欲報功效 物雖菲薄 誠則在斯 身雖不精 心則
極誠 伏惟明神 含弘光大 厚德載物 何福不致 何災不滅 願我微生 特垂冥佑

1) 현관이름

有罪斯赦 有怒斯鮮 有魔斯滅 有邪斯退 轉禍爲福 致祥彌災 子孫昌盛 賜壽
賜福 五穀豐登 育畜敏滋 衣食豐足 口舌消除 水火不傷(及難脫)
使我一室 永垂福祿 謹以醴齊粢盛 牲(魚)幣帛果 庶品祇薦 于神 尚饗

◎ 홍태권 할아버지가 제공한 토신제 축문(제보자 홍태권, 男·78)

〈平安土神祭 祝文〉

維歲次 丙戌 十二月 某朔 謀日 干支 獻官○○○ 敢昭告于(神祈禱祝)
明堂土地之神 伏以 宅主 某姓名 卜居茲地 于今年久 鑿尾之慶 莫非神休
茲以吉辰 齊誠仰禱 伏唯明神 特垂陰佑 降我以福 增我以壽 兒孫無恙 垂裕
永世 百穀大登 洋洋滿家 六畜蕃息 俾無夭折 時氣疫癘 論於海外 家用平康
萬事如意 松茂竹包 鳳鶴呈瑞 千萬顯祝 報賽無數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
式陳 明薦尚饗

明堂 土地之神位 前

2) 明鑑祝(제보자: 홍태권, 男 78세)

생업의 풍요를 비는 新年祭로 농사의 풍성을 기원하며 祭神은 明鑑府君之神
이다. 祭場은 깨끗하며 조용하고 정결한 곳에서, 儒式 제법에 의해 行祭한다.
祭日은 擇日하며 정성을 다한다. 기타 祭物 등은 앞의 土神祭와 같다.

〈明鑑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明鑑府君之神 伏以 宅主 某○○
資衣資食 唯神之德 家眷安保
惟神(紳)之德 萬事無憂 惟神之德
今迎新正 擇茲吉辰 齊誠伏祝

於赫明神 特垂陰隲 保轉爲福
 反凶爲吉 五穀豐稔 六蓄蕃息
 永賜祉繁 萬萬祝手 報賽永年
 謹以醴齊 粢盛魚幣 庶品祇薦 于神尚饗

3) 삼승할망비님

삼승할망은 產育神이다. 出產과 生後의 백일 첫뉘 등 기타 수시의 비님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의례를 행한다.

제물은 메 2개, 떡, 香火, 물 등을 차려 놓고 비님을 하는데 다음 經을 7번 읽어야 효험이 있다고 한다.

제보자 홍할아버지는 책자에다 축문을 조목조목 적어 두어서 우리 조사팀의 작업이 꽤 수월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차츰 적극적이며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다. (제보자: 홍태권, 男·78세)

〈佛說童子續命經〉

(제보자: 홍태권, 男·78세)

天上天下受一薩 天上天下受一薩 地下天上受一薩
 天上四方受一薩 天上八方受一薩 地下諸神受一薩
 今茲童子已丑生 朴承復增福壽 三十三天增福壽
 二十八宿增福壽 阿修輪天王增福壽
 帝釋天王增福壽 上方大梵天王增福壽 大自在天王增福壽
 化樂天王增福壽 兜率天王增福壽 毘沙門天王增福壽
 下方轉輪聖王增福壽 日天子王增福壽 月天子王增福壽
 六辨天王增福壽 日光菩薩增福壽 月光菩薩增福壽
 無碍菩薩增福壽 古往今來菩薩增福壽
 四方天招官增福壽 丙寅生朴承復 年絕兒限童子神
 月絕兒限童子神 日絕兒限童子神 時絕兒限童子神
 胞絕兒限童子神 八卦兒限童子神 東方青帝青衣夫人童子神 南方赤帝衣夫

人童子神 西方白帝白衣夫人童子神 北方黑帝黑衣夫人童子神
 中央黃帝黃衣夫人童子神 北方大星善童子神 惡童子神
 天呑 地呑 年呑 月呑 日呑 時呑神
 天樂 地樂 年樂 月樂 日樂 時樂神
 三十三天童子神 八萬四千雷公童子神
 丙寅生 高興垣 某年 某月 某日 某時 生兒
 短命疫殺 一時消滅 善神守護 永無災殃
 延年益壽 乃至一百二十歲 衣經正法
 如佛如法 如僧說此經已 一切天衆鬼神
 信受奉行 作禮而法 金剛壽命 陀羅尼經

조사팀은 또한 송치선 할머니를 찾아서 巫式비נם을 들었는데 전부 듣지 못해
 서 일부만 옮긴다. (제보자: 송치선, 女·80세)

천왕불도 할마님 인왕불도 할마님 얼굴추진 혼합천주 서신국 대적상 땡진
 국 할마님, 우리아기 물주멍 키움서 춤외키우듯 물웨키우듯 키와줍서.

요놈의 딸은 혼살적엔 때를 몰랐다가 두살적엔 때를알앙 어머니님 젓가슴
 에 두들긴 죄목, 세살적엔 아버지님 동머뒤에 앉아서 혼 죄목, 혼 식설엔 하
 르바님 동머뒤에 앉앙 삼각쉬염 흘튼 죄목, 혼 뇌설엔 성지간에 불목허곡,
 혼 다섯살엔 동네방상 모두 불목시기곡, 혼 9섯살엔 날랫멍석 허끈 죄곡,
 십오대왕신디 축수허난 물어신디 가서 귀양보내블라.

눈 베통헌 것 괴영 혈 순 어선 다시 축수허난, 일혼9덱 상거슴 통쇄허
 영 무쇄석괵에 담앙 드리쳐블라.

물 우이도 상상봉 물 아래도 상상봉 부에낭 알로 간 지쳐부난, 물장수
 때 만나건 올라오랜허난 인동수 느려간, 어찌허니 나이름자 새겼느냐 혼한
 인동수 때 만나건 올라오랜허연 올라왔수다.

집시하르방 아덜들은 금석괵 남은여 봉갓수다. 남은여 봉갓수다.

우리 아기도 꺾허민 번지준다. 송씨 하르방 가난허곡 서난허난 구쟁기
 나 낚아다 먹젠 갔단 겁테기랑 날도라, 담배석괵 ㅎ져.

어찌 귀신인가? 생인인가? 나 생인입니다. 어찌 생인이 무시에 속할 수가 있느냐? 죄가 만만 내어드민 용왕 풀입네다.

어승할망으로나 들어사지겠느냐? 예 들어사겠습니다. 앞 이망엔 돌님이요, 뒷 이망엔 벨님이요, 왼손엔 단소육갑 마당향난 ○○허연 아이고 트기줄 줄은 알곡, 해복 해청철 줄은 몰라지만 오무순이 지말은 잘못 대답허였구나.

<下略>

4) 竈王祭

조왕제는 부엌을 맡은 神인 竈王을 위하는 것이다. 祭日은 집안식구들의 生氣에 알맞는 날로 擇日하며 祭場은 조왕(부엌)이다. 祭神은 竈王之神 神位前, 곧 3德諸 조왕이다. 조왕신에게 기원하는 한편 가내의 諸神(문전, 안칠성, 밧칠성)에게 가내의 안전을 빈다. 3德者 조왕을 모시므로 祭物도 메3器, 떡3개, 과일 3器, 해어군것 3개를 올린다. 그러나 생것으로는 올리지 않는다.

竈王祝은 3번 읽는데 그때마다 소도 3번 사른다. 조왕제가 끝나면 竈王經(조왕歡喜經)을 7번 독경한다. 몸이 아프거나 동티가 났을 때는 역시 擇日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는 살귀를 내쫓기 위함이고 사발에 흰쌀 1器, 찬물 사과 등을 올린다.

<竈王祝>

竈王之祝 伏以 天開於子 地關於丑 人生於寅
六十甲子 二十八宿 十二請神之中 尊靈爲首
明察人心 占之禍福 賴我恤我 竈王之德
保我佑我 竈王之德 致我萬福 竈王之德
消我千灾 竈王之德 使我一家 男女老少
路中得病之厄 縣官非橫之厄 年月日時
千灾萬厄 一時消滅 暗中光明 敗中得成

危中得安 病中得差 轉禍爲福 莫非○○
竈王之德 謹以醴酌 庶羞祇薦 于神尚饗

① 조왕경(竈王歎喜經)

稽首莊嚴竈王神 十方照曜十光明
威光自在竈王神 土地龍神皆歎喜
天上仕官竈王神 闔家人衆摠安寧
內外吉昌竈王神 金銀玉帛滿堂進
常逢吉慶竈王神 惡鬼邪神退散去
志望周成竈王神 億善萬福皆具足
離障安住竈王神 夫婦家人增福壽
災殃永滅竈王神 百病消除大吉祥
曾時守護竈王神 百穀勝出養蠶倍
救護舍宅竈王神 一切諸神皆歎喜

② 竈王經(몸이 아플때, 동티 났을때)

平方青土 將軍青土 婦人青衣 竈王青衣 童子南方 赤土將軍 赤土婦人 赤
衣竈王 赤衣童子 西方白土 將軍白土 婦人白衣 竈王白衣 童子北方 黑土將
軍 黑土婦人 黑衣竈王 黑衣童子 中央黃土 將軍黃土 婦人黃衣 竈王黃衣 童
子五方 諸神靈位前

今此家內 ○居男女老少 歲月日時之厄 一一保佑之意 茲以祈禱伏氣
尊靈特垂 弘福增福 增壽永壽 好福好而 臨我愛之 恤之憐之 惜之
枯木逢春 賴被生老 轉禍爲福 變離化吉之意

今日吉日 禱于皇天 祈于靈神 雜神邪神 速去千里 青帝竈王 赤帝竈王 白
帝竈王

比帝竈王 黑帝竈王 黃帝竈王 五萬八萬竈王

四萬五千 六百竈王 與我同論 二十四方 諸邪鬼噉 急急如律 令娑婆阿

5) 七星祭

七星祭는 북두칠성을 위한 巫儀로서 長壽와 福을 비는 祭이다.

祭神은 七星之神 神位前으로 蛇神이 칠성이 아니고 환생한 것에 불과하다.

祭場은 皮房(庫房)으로 안칠성, 밧칠성을 함께 지낸다.

祭日은 가족 生氣를 맞추어 擇日하며 동티가 낮을 때는 아픈사람 生氣에 맞춘다.

祭官은 한 사람이며 한문을 알아 祝文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빌어서 하기도 한다.

祭物로는 술은 오르지 않고 메7器 찬물1, 폐백으로는 무명, 시령목, 명주, 베 등 1필을 한다. 그런데 폐백을 열자 올리면 天命을 기원하는 것이 되며 열두 자 올리면 福을 기원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절은 3拜하고 祝文을 한번 읽을때마다 소지를 살라서 3번 사르게 된다.

禁忌로는 개나 말고기를 금하며 집의 出入路에 금줄을 쳐서 不淨人의 出入을 금한다.

<七星祝文>

(例1)

七星之神 伏以 海東朝鮮 全羅南道 濟州島 邑 里 區○俗居小人某姓名各年
幾歲 年久月深 未陳誠意 罪罪阜尅 萬萬惟神 伏惟諸罪能滅 靈神仰禱

(例2) 몸이 아플 때, 동티가 날때

七星之神 伏以 海東朝鮮 全南 濟州島 翰林邑 歸德里 卜居茲地 俗居小人
宅主姓名 某孫 月久日深 未陳誠意 今以吉辰 靈神感應 伏惟尊靈 心實惶恐
所○○○ 蠶虫民生 何知阜崇 敢告厥由 子孫卦病 小無差僚 神其保佑 碑無
後艱 碑慈渾眷 九疇登豐 充溢露積 千灾萬厄 隨時消滅 無藥自僚 子孫安平
永賜祉繁 六畜蕃昌 永世無極 謹以華水 庶差○○ 伏願泰伸 尚饗

6) 船王祭(배고사 뱃삭망)

‘船王’이란 배를 관장하고 수호해 주는 神을 말하며 船主가 출어준비하고 나갈 때나 풍어 후 감사례로 선왕제를 지낸다.

이 마을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서 배를 부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지만 배를 갖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거의 선왕제를 하고 있었다.

귀덕1리, 2리, 수원리 용운동에서 각기 선왕 모시는 계약간씩 달랐으며 수원리 용운동에서는 船王을 女子로 보고 있으며 귀덕1리, 2리에서는 男·女로 구별하여 보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인들은 배고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① 祭名; 일명 초하루보름제라 한다.

② 祭神; 배를 관장하는 船王, 선주는 출어준비하고 나갈 때풍어와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③ 祭日; 매월 음력 14일과 그믐날에 오후 밀물 때를 택하여 보통 저녁에 行祭한다.

④ 祭場; 船內에서 祭를 지낸다.

⑤ 祭物; 간단하게 차린다. 메, 고기, 술, 과일(절기에 따라)을 올리는데 메는 3甌를 올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물, 그물, 기관실에 준비하며, 작업종류에 따라서 잡귀분으로 메1기를 더올려 4甌를 준비하기도 한다.

⑥ 行祭; 1拜하고 약 5보쯤 뒤로 물러서서 목례를 하고 이물, 기관실, 고물 그리고 배주위를 돌면서 깨우린다.

⑦ 祭服; 평상시 입는 옷으로 깨끗한 것을 입는다.

⑧ 禁忌; 부녀자들은 배에 오를 수 없으며 제관은 제물 차릴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여자를 보더라도 외면해 버린다.

⑨ 豫兆; 기후가 나쁠때 미리 공중이(귀뚜라미) 울음소리 같은 불길한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고사를 지내지 않았을 때 선왕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한다.

分科別 發表要旨

〈語學分科〉

한글 전용론에 대하여

한글 전용론에 대한 논의는 꼬박 20년 동안 벌어져 왔다. 정부가 수립되던 48년 10월 1일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해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공포됐다. 그 후 문교당국은 한글 전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62년(한글 전용 특별심의회)을 설치하고 국내에서 간행되고 있는 신문잡지 등 대중성을 띤 각종 간행물에서 한자어, 외래어 등을 뽑아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순수한 우리말 또는 우리말식 용어로 바꾸게 했다. 그 원칙은 (1) 일반 국민생활에서 쓰는 글은 모두 한글로 쓴다. (2) 널리 쓰이는 말은 모두 한글로 쓰고,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적당한 쉬운 말로 고쳐 쓴다. (3) 동어, 이어는 아무쪼록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4)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는 쉬운 말로 고쳐쓰되 너무 어색한 새 말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 등이 있다.

1967년 11월 박대통령은 한글을 단계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연구토록 지시(한글 전용 5개년 계획)하였다. 정부의 한글 전용 5개년 계획에 따라 73년까지는 한글 전용이 실시되도록 세부 계획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계획은 (1) 일반 공문서는 특수한 것에 한하여 한자를 병용하고 69년부터 완전히 한글을 전용하여 (2) 법령문은 72년까지 해독이 곤란한 것만 괄호 안에 한자를 쓰고 (3) 정부 간행물, 일반 간행물은 73년부터 한글만 쓰며 (4)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단계적으로 한자를 줄여 72년엔 고등학교 교재 전부에 한자를 없앤다는 것 등이었다.

—한글 전용과 더불어 시급한 국어 정화—

일부 학자간에는 국어 정화 문제도 아울러 추진(국어연구소) 같은 영구적 기관이 설치되고 메스콤 종사자들의 협력을 얻어 저속하고 옳지 않은 말을 추방, 꼭고 바른 국어를 지키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 NHK의(방송문화연구소)나(신문협회)가 국어 정화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 바른 국어생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 프랑스의(아카데미)가 바른 프랑스어 수호에 앞장서고 언어문제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듣고 상설 국어 연구 기관의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한글 전용 문제—

우리 글을 전용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다만 그 전문화의 단계적 방법론이 문제가 될 뿐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글이 제정 반포된 지 5백여년. 그 동안 한글은 한자에 눌러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아온 것은 고사하더라도, 일제의 강압을 거쳐 해방 후 우리 말을 전용하자는 논의는 수없이 계획되어 왔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통일된 국론으로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정부안으로 확정될 때까지 국내 학술 문화 단체를 비롯하여 뜻있는 인사들의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글 전용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자 위주로 혹은 국한문혼용으로 익혀 온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를 한글 전용으로 급전환하는 데는 일시적인 혼란과 무리가 없을 수 없다. 그래서 문제는 한글 전용화에 원칙적으로 찬동한다면 그 방법론 제시가 있을 뿐이지 전면적인 반대는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한글 전용 문제는 반드시 한자 전폐로 발전해서도 안된다. 한자는 그대로 하나의 외국어로 취급되어 존재되어야 하겠으며 한자 교육도 계속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 전용과 한자 교육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 점을 혼돈하여 한글을 전용하면 마치 한자가 영원히 말살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한글 전용의 본의—

한글을 사용하자는 주장은 한글이 우리 문자라는 단순한 이유로서가 아니라

우리것이라도 나쁜 것이면 아낌없이 버려야 할 것인데 한글은 세계 어떤 문자보다도 우수한 성능의 문자인 동시에 우리말 표현에 가장 적합하고 우리의 학습과 실용에 가장 자유롭고 편리하며 더할 수 없이 우리의 생활에 맞는 문자이니 이런 문자를 상용으로 함은 그 이상 더 자유스럽고 더 다행한 일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세계에서 이중 문자를 혼용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 뿐이다. 그런데 일본이 가진 가나 문자는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자이어서 부득이한 고식책으로 한자 제한론이 일어나게 되고 한편으로 가나 문자의 철폐법이 몇 갈래 몇 차례로 수 없이 개정 거듭하고 있다. 아뭏든 일본의 한자제한은 한자를 사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약자인 가나문자가 워낙 병신문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섞지 않고는 실용이 되지 못하므로 이중 문자의 혼용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나 모르지기 우수한 본질과 성능을 가진 한글을 우수하게 사용할 방법을 연구하기에 성의를 쓰는 일이 진실로 가치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글 전용의 문화사적 의미—

(1) 첫째로 민족 정신의 자각을 뜻한다. 한글 창제 자체는 민족 문화의 독립 선언이고, 한글 전용은 한국 민족의 둘째로 완전한 문화독립의 선언이 된다.

(2) 둘째 ‘한글’은 민주적이요, ‘한자’는 특권계급적이다.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유한특권계급)의 문자로 문자생활을 할 수가 없다.

(3) 셋째, ‘한글’은 과학의 문자이다. 한글은 분석 종합의 원리에 대한 산물이다. 곧 과학정신 활동에 큰 지장을 준다. 한문 글자는 이런 분석 종합의 과학정신 활동에 큰 지장을 준다.

(4) 넷째, 한글 전용으로 우리 민족에게 새 문화를 꽃피게 할 것이다. 국어의 활발한 발달은 모든 문화 방면에 연대 작용을 일으켜 모든 문화 활동에 창조적 세력에 박차를 더할 것이다.

(5) ‘한글 전용’은 민족정신의 창조력에 새 날개가 될 것이다. 중국식 사고방식이나 외래적 사고방식을 떠나 민족 고유의 생각을 가능케 할 것이다.

한글 전용 반대에 대하여

1. 서 론

한자어는 외국어가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국어의 어휘이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말살할 수는 없다. 언어란 음상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 파악, 개념 파악이 문제이기 때문에 한자의 한글 표기가 가져오는 혼란은 2, 30년 후에는 견잡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학의 쇠퇴, 민족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본 론

(1) 한글 전용 파동 약사

한글 전용에 대한 논의는 꼬박 20년의 세월 동안 벌어져 왔다.

48년 10월 1일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

48년 10월 9일에 법률 제6호로 공포

내용(우리나라의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쓸 것과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 동안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

당시 내무부장관 김효석씨가 한자를 섞어쓰라는 법에 위반되는 명령을 내리어 실시가 일단 중단됐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한글 전용법의(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동안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때문에 한자 병용은 실질적으로 인정되

어 왔다. 한글전용론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반발은 40년동안 줄기차게 벌어져 왔다. 잠잠했던 때도 있었지만 이따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서로 극을 달린 양론은 별다른 진전없이 되풀이만 되어 왔다.

62년(한글 전용 특별심의회)를 설치.

62년 7월 심의에 착수하여 63년 8월까지 총 1만4천1백49개의 용어를 심의 결정했다.

67년 3월 상용한자 1천3백자의 약자를 제정, 그중 5백70자를 발표

67년 11월(한글 전용 5개년 계획) 마련

68년 5월(한글 전용 계획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는 세부 계획안을 마련, 발표

(2) 당위성

한글 전용이 과연 우리 문화수준의 향상을 의미할 것인가? 습득하기가 쉬워서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문화수준의 향상이라 할 수는 없다. 불과 수십개의 단어를 가지고도 언어생활을 해나가는 미개종족도 있는 것이다. 쉽고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국민을 중우로 만들자는 것이지만 한 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수준을 끌어 올리자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한글 전용만이 과연 애국 애족의 길인가? 현재 한자를 사용하는 한, 중, 일의 세 민족 가운데 한자를 본래의 문자로 삼는 한민족은 별문제라 하더라도 일본은 지금 1천8백50자의 상용한자를 더 늘릴 움직임이 그들의 심의 기구에서 공식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일본은 애국 애족의 심정이 없어서 한자사용을 폐지는 커녕 증가시키려는 것일까? 일본이나 우리의 경우 한자는 이미 각기 국문자의 일부인 것이다. 한글을 무시하던 오랜 시대의 반동으로 한글을 존중하려는 움직임이 수십년 계속된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한자를 증오하는 것은 애국심의 과잉이요, 한자폐지 반대의 의견도 그에 못지 않은 애국심의 소치인 것이다. 우리 과거의 모든 기록의 대부분이 한자, 한문으로 되어 있으므로, 한글전용은 곧 우리 과거의 문화와 절연 상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도리어 우리 민족자신의 진면목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자주 정신이나 민족주체성을 되찾는 데 큰 장벽이 생기게 될 것이다.

3. 결 론

한글 전용이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곧 민족문화의 발전, 선양을 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자칫하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을 뿐 아니라 일부 논자가 주장하듯이 한글 전용만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이나 특질을 창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고유문화나 민족주체성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속단이요, 망론이 아닐 수 없다. 또 한글과 제한된 한자의 혼용에 의한 지식습득의 능률과 속도에 대하여도 여러 사람의 이설이 있는 터인 즉, 이런 것은 과학적인 연구와 조사를 거치지 않고 그 가부를 경솔하게 단정할 수 없는 일이다.

환경이 빚어낸 삶의 비가

-박경수의 (동토)에 대하여-

1

1968년 (신동아)에 연재되었던 박경수씨의 (동토)는 발표되면서 약간의 화제에 오르기는 했으나 본격적으로 검토가 없었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만큼 성공한 작품은 아니더라도 당시에 드물게 배경이 농촌이라는 소재를 택하였다는 점과 그의 단편에 대한 역량으로서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1970년대 거론된 농민문학론에 대한 약간의 어필과 더불어 사회·문화적인 비평방법으로서 작품을 이야기하여 보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시대적인 배경,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속에서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역량이 부족한 관계로 어떤 결론의 제시보다는 문제 제기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다.

2

농민문학에 대한 작가의 작품은 일찌기 식민지 시대의 이광수씨의 (흙)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작품에 있어서 복음주의와 설익은 교양과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농촌사회와 농민생활에서 작품이 깊이 뿌리박고 그곳 사람들이 살아가고 느끼고 있는 고달

품이 작가 자신의 생생한 현실로 동화되고 더 나아가 농촌의 실태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농민문학론이라 할 수 있다. 박경수씨의 (동토)는 김동리(산화), 김정한(사하촌), 오영수, 오유권, 하근찬, 송기숙, 이문구, 방영웅, 한승원, 백우암, 김춘복, 문순태 등과 이어진 문학형태라 할 수 있다.

먼저 사회·문화적 비평은 대체로 문학이란 사회적으로 조건지어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기에 당시 농촌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인 듯하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경제학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에 지식이 빈약함을 먼저 언급하며 시작하겠다. 사회·문화적인 비평관은 “현실을 모르고 그 현실에서 태어난 문학을 안다고 하기 힘든 만큼 현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괄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당시 상황을 보기 위해서 농촌만을 봐서는 안된다고 느낀다. 농촌만 한정하면 “그래도 일제시대보다야 나아졌지” “자유당때 보다야 나아졌지”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얼마간의 개선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의—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체의—어느 부분을 절단하고 그 부분만으로써 설명하는 것은 부분끼리 영향을 주고 받으며 존속해 가는 본질적인 사회의 속성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렇기에 도시와 관련해서 도시와 얽혀있는 여러 상관 조직에서 비로소 우리는 농촌의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당시 한국사회를 ‘근대화’란 단어없이 설명하기 힘든 것 같다. 이는 공업화에 의한 일련의 산업혁명과 그것을 기초로 하여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일체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근대화의 뿌리는 18세기 실학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60년대 와서 극히 강조되었다. 이는 다만 매스미디어와 정책선전의 마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 근대화 작업은 이 시기에 이르러 보다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허다한 변화를 우리사회에 일으키고 있음은 틀림없다. 이 변화가 농촌사회에 미치는 작용과 반작용은 심화된다. 절대적으로 우세한 도시의 그것도 대도시의 위력 앞에 농촌이 철저히 예속된 상태에 있음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을 제외하고는 농촌이 후진국의 공업화 과정에 있어서 희생과 몰락의 대상이 되었다. 도시의 급속한 비대화와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주 그리고 남은 농민의 도시에 대한 동경이 빛나는 비극에 대하여 “근대화”의 화려한 현수막에도 불구하고 그 현수막에 나열

된 어떠한 부분적인 개선과 주관적인 선의에도 근본적인 파탄이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3

이번 단락에서는 이 작품이 보여주는 인간형태와 더불어 작품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주인공으로서(강문호)가 등장한다. 그는 가난하고 무식한 농사꾼의 아들이요, 스스로 가난하다는 의식이 어려서 부터 깊이 배어 있으며 성장하여 물질적 고통을 웬만큼 벗어난 후에도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언제나 이 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의식으로 되돌아오며 철저히 그것과의 내적, 외적 투쟁으로 시종 일관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공의 행위에 있어서 도둑소녀와의 행위는 새디즘적이며, 극히 강화되어 가다가 점차 약화되다 꺾이고 만다. 그는 철저히 도시적인 사람일 수 없었기에 불행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네 명의 여인이 나타나는데 첫째 인물이 영숙이다. 강문호가 철저히 투쟁할 수 없었던 것은 주동적인 적수(가해자)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영숙은 그 투쟁대상인 듯 하지만 실상 문호 자신이 언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부자에 대한 불신과 증오감에서 그러한 집 딸인 영숙이 조차 구체적인 이 유없이 증오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년이 편견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적대행위는 없었다.

도둑소녀에 대한 철저한 가해자로서 강문호의 행위는 약간의 어색함이 강하다. 이는 증오심에 대한 심화와 가련한 도둑소녀와 더불어 자신의 영혼에 대한 학대라 할 수 있다.

세번째 여인이 양정순 교사이다. 그녀는 문호에게 유별난 호의를 가지고 있으면 필요하면 종종 뜻밖에 나타나 그의 불행을 제거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녀는 히로인이 아니며 플롯의 등장인물이 일곱가지 행동영역 중 세번째 기능으로서 불행, 부족의 제거, 추적에서의 구제, 단점해결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조인물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네째 이 작품의 소설전개에서 반이상을 차지하는 이가 박해경인데, 그녀는 등장부터 상당히 많은 복선이 깔리고 있으며, 여주인공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고난극복의 강도약화와 남자주인공의 행위로 인한 괴로움, 유산으로 이어지는 수난 끝에 결국 사망에 다다른다. 하지만 과연 그녀를 제시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논평가들의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박경수씨의 (동토)는 상당히 미흡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주인공 문호가 형편없는 인물이며, 실패한 인간이라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작품의 실패는 근본적으로 문호의 실패에 있어 철저함과 진실성이 약한 작가라는데 있는 것이며 이는 시야가 농민도 도시인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의 시야를 가졌는데 있다. 결론 부분에서 치열성의 결여로 나타나는데, 문호가 혜경의 사망 후 농촌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은 무력한 투항이며 작품을 실패로 이끄는 기만적인 도덕주의와의 타협이다. 이것이 이 작품에 있어서 실패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4

이상과 같이 (동토)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상당히 산만하였음을 자인하며, 이 작품이 별로 성공한 작품은 아니지만 이런 작품이 1970년대에 이르러 대두된 농민문학을 낳을 수 있었던 물결의 한 갈래이었듯 좀 더 넓은 비평의 시야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농민문학은 결코 소재주의가 아니라 농촌이 글자 그대로 근대화의 혜택을 입지 못한 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절실한 삶의 문학이다”라는 말로 끝 맺고 싶다.

燕巖小說에 나타난 諷刺性

—〈許生傳〉·〈虎叱〉·〈兩班傳〉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諷刺小說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란 兩大亂을 거치고 英·正代를 전후하여 대두하기 시작한 實學思想을 배경으로 하여 은연 중 先知者 사이에 이때까지의 모든 僞善的인 사회와 인간에 대하여 비판의 눈초리를 돌리게 되었으니 諷刺小說이란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자연히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英·正時代に 성행을 보았던 實學派의 重鎮으로서 燕巖 朴趾源은 實學精神에 입각한 수많은 漢文短篇小說을 썼다. 그의 소설은 풍자성으로 시종, 일관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해서 그의 소설은 당시 인간의 개성 내지 사회생활의 모순이나 결함이나 불합리한 현상에 대해서 陰으로 陽으로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여기서는 그의 작품 〈許生傳〉, 〈虎叱〉, 〈兩班傳〉을 중심으로 그에 나타난 풍자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許生傳

〈許生傳〉은 여러 연암소설 중에서도 가장 사회의 악과 부조리에 용감히 대결하여 폭로 고발한 작품이다. 물론 이 소설은 작가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정책의 一端을 표현해 보고자 하기도 했지만 위정자의 無能力과 양반들의 僞善的·形式的인 생활태도를 풍자하는 데에 더 큰 뜻이 있었다.

許生이 현실에 참여하지 않는 까닭을 卞富豪에게 물었을 때, 趙聖期和 柳馨遠을 예로 들어 朝臣들의 無知와 無能力을 단적으로 폭로해 버렸고, 李滄에게 勳戚 權臣의 세력을 빼앗아서 國政을 刷新할 것을 세가지 計策 중의 하나로 들었음은 모두 당시의 그의 뜻과 어그러진 現實相을 고발한 것이다.

또한 許生이 유학자로서 서민들과 같이 상업을 하게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도학에만 침륜하여 허식만 차리고 현실의 핍박한 생활과는 유리된 空論만을 일삼으며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서민계급에 기생하여 無爲徒食하면서 君子然하고 실치없는 經論을 高論하는 점을 지적하여 생활의 방도를 타개하라는 것을 고취한 것이라 하겠다.

결국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僞善의인 유학도배를 규탄하고 한편으로 가장된 북벌정책과 姑息의인 경제정책, 빈곤한 사회정책을 비판·풍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文學的·思想的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2. 虎叱

〈虎叱〉은 일종의 寓話小說로서, 도덕군자의 존칭을 받고 있는 北郭선생이 열녀의 대접을 받고 있다면서 姓이 각기 다른 다섯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東里子란 과부의 집에 가서 밀회를 하다가 다섯명의 아들에게 발견되어 쫓겨나 오다가 뚝구렁에 빠지고, 大虎를 만나 一大叱責을 듣는다는 가장 절실한 寓話를 통해 도학자의 僞善의 생태를 통쾌하게 풍자한 걸작이다.

아들들이 밀회장면을 발견하고는 “그 도학이 높으신 北郭선생이 과부집을 밤중에 찾아올리 만무하니, 필시 허물어진 성내 밖 굴 속에 사는 천년 묵은 여우가 우리 어머니의 美를 탐내고 둔갑해 가지고 와서 우리 어머니를 홀리려는 구나.” 하면서 끝까지 北郭선생에 대한 존경을 아끼지 않는 작가의 부드러운 능청한 풍자는 매우 날카로운 기교라 하겠다. 또 “네가 입에 쓰도록 三綱五倫을 떠들어대도 거리에 얽치었고 체모없이 쓰다니는 작자들이 모두가 다 배웠다는 소위 양반들이다. 이들은 不澈晝夜하고 가르쳐도 그 나쁜 점을 고칠 도리가 없다.”고 한 호랑이의 말은 그대로 작자의 말이다. 그는 양반도학자들의 虛僞와 僞善과 沒廉恥한 根性을 추호의 양심적인 가책도 느끼지 않고 용서없이 폭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양반사회의 僞善的이며 好色的인 생활을 풍자한 풍자소설의 白眉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인공의 心理推移를 추구한 작품이라는 데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3. 兩班傳

〈兩班傳〉은 한 양반의 생활을 묘사하여, 양반들이 無爲徒食하며 虛禮와 形式만을 추구하다가 궁지에 빠져서는 그것을 타개하지 못하고 窮餘之策으로 양반이란 권리를 상민에게 판다는 無能과 無力을 폭로한 작품이다.

주인공 양반의 부인이 남편 보고 “당신이 그 꼴을 하고 한 평생 독서만 하고 앉았더니, 지금 와서 관곡을 갚을 방도조차 없는 모양이니 양반 양반하고 양반을 찾더니, 양반이 결국 한문어치도 못되는구려.” 하며 욕하는 말은 몰락한 양반들의 自家矛盾을 지적해서 풍자한 대목이다. 그리고 양반권 매매 계약서에 다 追記한 내용을 보면 “궁한 선비가 시골에 내려가 살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동네 집 소를 내 집밭 먼저 갈게 하고, 동네 사람들을 시켜서 내 밭 먼저 메게 할 수 있는데 만일 말을 듣지 않으면 코에다 잣물을 먹이고 상투를 잡아 매서 가진 刑을 준다해도 원망조차 못하는 법이다.”라고 기록한 것은 당시 양반들이 얼마나 상민들에 대하여 권력을 부리고 횡포하였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대목이다. 賤富가 그 내용을 듣고 “나를 도적으로 만들 셈이요.” 한 말은 그대로 양반들이 공공연하게 상민들의 재산을 도적한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이로 본다면 작가가 양반계급의 僞善的인 생활을 얼마나 증오했던가를 잘 알 수 있겠다.

이상 세 작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一世를 뒤흔든 燕巖의 實學思想과 批判精神은 그의 소설에 유감없이 반영되었다. 풍자의 대상은 대부분 상류계급이고 지배계급인 양반과 도학자들의 無能力한 생활과 僞善的인 생활을 폭로하는 데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실생활을 비판하여 몰락해 가는 지배계급의 進路를 啓示해 보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전소설에 있어서 어느 유형보다도, 우리 민족의 현실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 보려고 하였으며, 封建的이고 姑息的인 지배계급의 생활을 폭로하여, 냉철한 비판과 통쾌한 풍자를 감행해 본 작품이 이러한 풍자소설이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李箱 詩 小論

I

李箱은 新詩 이후 오늘날까지 인간을 그 의식의 면에서 관찰한 최초의 시인이며, 또 그의 詩가 다만 〈첫번째〉일 뿐이라는 시도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李箱이 문단에 등단한 1930년대는 우리나라 문학사상 현대 문학적 성격을 갖춘 문학이 등장했던 중요한 시기이다.

II

1. 李箱 詩의 革命性

李箱의 詩를 읽고 작품이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혹은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오감도〉의 〈시 제1호〉를 예로 들어 본다면 난해한 원인이 그가 사용한 용어나 단어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第十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十二의 兒孩도 무섭다고 그리오.

第十三의 兒孩도 무섭다고 그리오.

十三人 兒孩는 무서운 兒孩와 무서워하는 兒孩와 그렇게 뿐이모였소. (다른 事情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그중에 一人의 兒孩가 무서운 兒孩라도 좋소.

그중에 二人의 兒孩가 무서운 兒孩라도 좋소.

그중에 二人의 兒孩가 무서워하는 兒孩라도 좋소.

그중에 一人의 兒孩가 무서워하는 兒孩라도 좋소.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適當하오)

十三人의 兒孩가 道路로 疾走하지 아니하여도 좋소.

단어나 문장이 일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난해한 것은, 용어와 문장으로 써 조작되고 구성된 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과 의미가 난해하다는데 있다. 지엽적인 부분만이 표현의 완전을 얻었을 뿐 전체적 통일된 의미나 내용은 완전한 표현을 얻지 못했다. 구둣점과 띄어쓰기의 무시, 숫자나 수식 도표의 사용, 지나친 동어반복, 그리고 반생명적이고 추상적인 언어사용 등 이상 詩의 反詩의 포즈는 작품에 있어서 형식적 통일성의 파괴로 나타난다. 초기 詩에 나타나는 숫자를 뒤집어 놓는 다거나, 記述의 視覺의 配列이라든가, 圓形의 言語化 등은 메카나이즈 된 무감각만이 쓸 수 있는 詩語이다. 다시 말하면 위티즘, 아이러니, 파라독스 또는 에피그람은 그의 詩에 근원적 바탕을 이루어 온 것이다. 그가 사용한 비언어적 기호들은 언어를 유일의 수단으로 한 전통시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현대시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기 위한 개척이었다.

2. 李箱 詩의 內面世界

이상의 詩에서 가장 관심을 이루는 것은 <거울>의 이미지 같이 매우 중요한 의미구조이다. 그의 시적 발상은 대부분 자의식에서 출발한다. 自意識은 李箱 文學의 대표적 초상이다. 그의 자의식이 문학사적 가치를 띠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한다. 자의식은 인간이 자기와 만나는 공간이다. 이상의 「거울」은 물질적 차원의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사실을 언어도단인 것처럼 가장하여 두 개 자아의 관계를 교묘하게 극화시키고 있다.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네握手도반을줄모르는——握手를모르는왼손잡이오

.....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못하는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던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운事業에몰몰할게요.

〈거울〉에서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 사이에는 절대적 거리가 가로놓여 있다. 자의식 속에 대상으로 떠오른 〈나〉는 자의식의 주체인 〈나〉에게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것이다. 나르시스는 거울에 비친 신체자기를 자신의 진정한 자아로 착각했지만 이상의 경우 〈거울 밖의 나〉는 본질적 자아와는 다른 하나의 낯선 존재로서 〈거울 속의 나〉를 만난 것이다. 그러나 그 〈나〉는 일상적 자아와 단절되어 있는 것이다. 두 자아는 안팎의 공간적 대립만큼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 변한다. 거울의 이미지가 ‘자기분열’ 또는 ‘자아의 이중화’로 보아 이상의 의식이 끝없이 분열되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대개 거울의 이미지를 종합해 보면 ‘자아의 상실에 준한 양상을 띤 객체화된 거울 이미지,’ ‘자기분열,’ ‘자신의 의식에 대한 발견’ 등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는 李箱의 의식의 단면을 포괄하는 상징의 일부이기도 하다.

거울이 책장같으면 한장 넘겨서 맞았던 계절을 만나려면만

여기 있는 한 페이지

거울은 페이지의 그냥 표지

〈明鏡〉에서

〈암만해도 나는 十九世紀와 二十世紀 틈바구니에 끼여 졸도하려 드는 무리한 인 모양이오〉(1936, 김기림에게 보낸 서신)라고 한 李箱은 완전히 20세기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이런 李箱的 자아를 찾기 위해 자기모험을 시도했다. 그러

나 그는 끝내 <제가생각하는꽃나무에게갈수없소>(꽃나무中)처럼 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의식은 <거울 속의 나>만을 생산하는 자기분열에 빠졌다. 그의 자기탐구는 시도로서 끝났다. 李箱은 어떤 완성된 형식 속에서 그의 체험이나 주장을 집어넣으려는 전통적 작가가 아니라 현대문명에 파괴되어 보통으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개성의 파편들을 추려다가 거기에 될 수 있는 대로 리얼리티를 주려고 해서 여러가지 테크닉의 실험을 하여 본 작가이다. 그는 근대인의 자기해체에 누구보다 민감했지만 전체적 자아나 이상적 자아는 형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자아탐구의 실패는 그 자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현실이었던 전체적 자아가 오늘날에는 하나의 이상으로서 관념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문명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문학은 완성형의 문학이 아니라 미완성의, 아니 진행형의 문학이다. 작품 <거울>을 비롯한 자의식의 문학은 오늘 우리 실존의 리얼리티를 드러내고 있다는 바로 이 점에서 문학사를 초월한 <同時代的>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Ⅲ

李箱은 버젓이 詩라는 이름을 내걸고 言語이전의 기호와 도표로써 生理的으로 否定, 反抗의 작가임을 알려 주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詩는 언어의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도 못하였고, 현실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드러내지도 못하였으며, 절대적 세계를 탐구하지도 못했다. 그의 시는 흔히 난해시의 대표적인 것으로 곧잘 이용되지만 그것이 난해한 이유는 언어 조직을 감정적 질서위에 두지 않고 특수한 지적구조에 두고 있기 때문이며, 시의 내용을 감정이나 정서에 두지 않고 지적세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적 특수성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것이다.

구비문학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제주 민요의 계승 발전을 위한 고찰

I

구비문학이란 말로 된 문학을 의미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인간생활 속에서 전승되어온 것으로 글로 된 문학인 기록문학과 구별된다. 한국의 구비문학에는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민중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구비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조건은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가 구비문학 자체에 변질 또는 위기가 생겨 옛 것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에서 나옴이고, 두번째는 민족문학의 전통을 재평가하고 계승해야 할 필요성이 절감되었을 때 그 연구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계승하느냐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 즉 우리 선조들의 삶의 양식은 고통과 피와 땀, 즐거움, 갈등과 같은 생활의 적나라한 모습이 투영된 것이 곧 우리의 전통문화이고 그 속에 구비문학 역시 그렇게 존재해 왔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것을 현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 낼 것인가라는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여기서는 제주민요의 부분을 고찰, 민요의 재창조를 위한 우리의 과제를 찾고자 한다.

II

1. 민요의 특색

민요가 민중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도출된 것임에 그 성격이 민중적이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얘기되었다. 민요는 서민들만이 부르는 서민예술로 존재가치가 높았고, 민중의식은 서정성을 띤 순수한 상태에서 나타났다. 민중들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 수단은 노동이었기 때문에 노동요가 민요의 근원을 이룸은 당연하다.

2. 제주 민요에 나타난 도민 의식

민요는 지역마다 서민생활을 그대로 축약, 한 지역의 특성이 그대로 민요에 구현된다. 제주도 민요 各篇에는 제주도의 風土, 歷史, 民俗, 產業, 經濟, 宗教, 文化 등이 반영된다. 예로부터 척박한 땅과 짓궂은 歷史가 계속되어온 이곳에서 우리 先民들은 관리의 수탈, 토호의 횡포, 과중한 세금과 몽고 왜구의 침입 등 시달림을 받아왔다.

제주도 민요에서 노동요와 婦女謠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은 지리, 역사적으로 중첩된 갖은 고난의 삶을 지혜와 의지로 이겨내는 가운데 한사코 忍苦하며 力行하는 도민들의 生活觀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눈물의 歷史를 겪으면서 억세게 다져진 도민 특유의 생활양식은 한마디로 自彊不息意識인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민요 중 노동요는 30여종에 이르는데 이 중에 '맷돌·방아노래', '해녀 노래'가 거의 다수를 이루고 '점질매는 노래'도 그 수가 다음간다. 이것은 노동요가 제주민요의 主宗을 이루며 핵심은 '맷돌·방아노래'이고 제주도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해녀 노래'가 전승된다는게 특이할 만하다. 이들 민요의 경우 노동실태를 다루기보다 대부분 부르는 이의 심정, 곧 인간의 情意를 노래하고 있으며 題材는 生活苦, 自立勤勉, 시집살이, 애정, 가사가족, 警世, 信仰, 風土, 꿈과 所望 등 서민생활과 의식 전반에 걸쳐 있다.

3. 제주 민요 연구의 현단계와 앞으로의 과제

제주민요 연구는 1920년대 자료 수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선각자들에 의하여 어느정도 민요에 대한 자료보존 및 기록으로 정리되어졌다고 보아진다. 그 전승이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료의 수집과 보존이 시급함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요의 경우 우선은 제주도 민요의 가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민요의 가락자체가 채보되어야 함과 아울러 그것이 현대인의 음악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냐는 문제를 찾아내어 현대 생활양식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민요의 다각적인 연구방향 등을 살펴보면 서민생활과의 관련속에서 민요 각편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나 음율, 문체 등 그 형식분석, 사설에 나타난 낱말의 바른 분석, 가락과 사설과의 상관성 분석 등으로 연구해볼 수 있겠고, 다른 구전문학과의 교류실태연구나, 국내의 여러 민요와의 비교 연구 등도 주어진 과제라 하겠다.

Ⅲ

이상과 같이 민요가 갖는 특성과 앞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민요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 요약해 보면, 민중문학이라 할 수 있는 구비문학을 현대의 상황속에서 어떻게 재창조시킬 것인가를 위한 고찰에서 그 중 제주민요의 부분을 살펴보았다. 민요는 구비문학 중에서도 유독, 민중들만이 부르는 서민 예술로 그 본령은 노동요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민요는 거의 대다수가 노동요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는 제주도라는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고통받은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생긴 도민 특유의 생활양식인 自強不息意識이 담겨 있다.

제주민요는 그 연구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몇 분 안되는 이들에 의해 어느 정도 자료 수집과 보존이 되어 있긴 하나, 입체적 연구 등연구 방향에 있어서는 미약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요 속에 담겨진 정신을 현대화시켜 민족적 자주성을 확립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반드시 해야 할 임무이기도 하다.